



目 次

● 미디어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유럽 중세 활판 인쇄술의 발달역사와 미디어의 역할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강승구	1
● 에너지소비와 출산율 이필렬	23
● 한국 사회의 차별·배제의 분석 틀로서 내부인종주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검토 김재형	39

CONTENTS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dia and the Social Change: Focusing on the History of Metal Typography and the Role of Media at the Medieval Times in Europe	Seungkoo Kang 1
☯ Energy Consumption and Fertility rate	Lee , Pil Ryul 23
☯ Theoretical Review for the Study of Internal Racism as the Framework for Analysis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n Korean Society:	Jae Hyung Kim 39

미디어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유럽 중세 활판 인쇄술의 발달역사와 미디어의 역할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강 승 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dia and the Social Change: Focusing on the History of Metal Typography and the Role of Media at the Medieval Times in Europe

Seungkoo Kang, Ph.D

◁ 목차 ▷

I. 머리말	V. 종교 개혁의 시작과 미디어의 발달
II. 중세 유럽 사회에서의 인쇄 미디어의 등장과 변화의 시작	VI. 중세 유럽 사회에서의 대중 미디어 신문의 등장
III. 활판 인쇄술이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	VII. 15-18세기 유럽의 사회변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
IV. 유럽 사회에서 금속활자 인쇄술이 가져온 4대 인쇄 미디어: 책 / 뼈라 / 포스터 / 팸플릿	VIII. 맺음말 참고문헌

I. 머리말

이 연구는 미디어의 발달과정에 따라 유럽 사회의 변화와 발달과정을 추적하는 연구인데,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미디어의 발달과정 속에서 금속활자에 의한 활판인쇄술의 발달이 미디어의 등장과 미디어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측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중세 유럽에서의 인쇄술의 발달이 가져온 사회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발전된 미디어의 힘이 유럽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 연구는 먼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어떻게 금속활자를 개발하고 인쇄기술을 발전시켰는지를 먼저 규명하게 될 것이며, 금속활자에 의한 활판인쇄기술이 어떤 대중적 미디어를 출현시켰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엔 그러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이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의 시작과 맞물림으로써, 종교개혁의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주었는지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

유럽 사회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도시들은 종교개혁에 가담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금속 활판 인쇄술의 도입이 가져다주는 부의 이익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규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독일 사회에서 활판 인쇄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종교개혁의 성공을 어떻게 가져다주었으며, 독일의 지역도시들을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하는 점을 고찰해 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연구는 새로운 인쇄기술이 어떤 대중적 미디어를 탄생시키고 종교개혁의 성공을 완성시키며, 유럽 사회 특히 독일 사회의 도시들을 어떻게 변모시키고 성장시켰느냐 하는 점을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중세 유럽 사회에서의 인쇄 미디어의 등장과 변화의 시작

-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의 개발과 활판 인쇄술의 등장

독일의 동전주조 기술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에 의한 금속활자 인쇄기술이 유럽사회에 등장하는 시기는 대략 1450년대 초반이다. 세계 3대 발명품(금속활자/나침반/종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금속활자의 등장은 유럽 사회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금속활자를 세계 처음 개발한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1377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속활자는 먼저 개발했지만 크게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독일의 금속활자는 처음엔 기독교의 성경을 찍어냈고, 다음으로 많은 일반 서적들을 인쇄해 냄으로써 유럽 사회 가운데 독일 사회에 가장 먼저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일반 서적뿐만 아니라 한 장짜리 전단지를 비롯해 포스터, 빼라 및 팸플릿 등이 활판인쇄술에 의해 전보다 빠른 속도로 인쇄될 수 있었다.

금속활자와 활판인쇄기를 개발한 구텐베르크는 원래 동전의 주조기술을 갖고 있던 금(金)세공기술자였다. 구텐베르크가 굳이 왜 금속활자를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는 확실치 않지만 금속 동전의 주조기술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개발은 숙명적 필수 과업이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업적은 동전 주조 기술과 활판, 그리고 목판인쇄기와 유성잉크의 사용을 결합시켰다는 점이다. 그는 그래서 활자가 쉽게 깨지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합금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활판인쇄기술을 혁신시킨 것으로 알려진다.¹⁾

구텐베르크는 독일 마인츠의 조폐국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활자주조 기술을 창안한다. 마인츠는 프랑크푸르트에 가까이 위치한 도시이다. 구텐베르크는 철로 만든 형틀 및 주조기를 쓴 덕분에 수천 번을 주조해도 모양과 크기가 일치했다. 형틀이 망가지더라도 편치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제작이 가능했다. 인쇄기에서 조판과 활자에 서로 요철을 만들어 꼭 물리게 하는 방식을 썼으므로 수백 장을 찍어도 활자가 밀리는 일 역시 거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량 인쇄가 용이하게끔 기존의 포도주 기름 등을 짜던 압축기(프레스)를 활용한다. 활자 인쇄가 잘 되려면 충분히 압축하는

1) 김영기 역, 데이비드 크롤리, 폴 하이어 저(2018).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29.

힘이 필요했던 것인데, 현재도 신문과 언론을 『Press』라 칭하는 것은 이 구텐베르크 인쇄기의 인쇄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²⁾

구텐베르크의 집안은 독일의 하급 귀족으로 마인츠를 통치하는 대주교 밑에서 동전을 찍어내는 금속 세공 관리로 일했기 때문에, 구텐베르크는 주물과 압축 등의 금속 세공 기술과 지식을 익혔다. 당시 유럽에서는 교회와 세속 권력 간의 주도권 다툼이 있었는데, 세력다툼에서 지면 추방되곤 했다. 구텐베르크의 부친도 세력다툼에서 밀린 것으로 전해지며, 슈트라스부르크로 이사하여 살았는데, 이때 구텐베르크는 금속활자를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1444년경 귀향하였다. 1448년 마인츠에 인쇄소를 개업한 그는 가톨릭교회의 면죄부를 찍어 팔았다고 전해진다.³⁾

이후, 구텐베르크는 고딕 활자를 사용하여 최초로 36행의 라틴어 성서, 즉 <구텐베르크 성서>를 인쇄하였다. 1453년경 당시보다 작고 발전된 활자로 개량한 후, 2회에 걸쳐 42행의 구약성서를 인쇄하였는데, 이 책에서 나타난 우수한 인쇄 품질로 인해 그는 호평을 받았으며 이것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⁴⁾ 전반적으로 흑백 인쇄이지만 중간 중간에 붉은 색 계통의 단색 칼라의 문양을 새겨 넣음으로써 인쇄품질의 수준을 높였다. 마인츠 시에 가보면 지금도 구텐베르크 박물관 안에 그 당시 인쇄된 성경책들이 소장되어 있다.

구텐베르크는 1452년부터 약 3년 동안에 걸쳐 <구텐베르크 성서> 180부를 인쇄했는데, 필사본 생산 속도와 비교하여 15배나 빨랐다. 구텐베르크 인쇄기는 인쇄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1분에 2~10장 가량을 인쇄할 수 있다고 한다. 구텐베르크는 인쇄본 성서에 컬러와 그림 문양 등을 넣어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었고, 거기에 삽화나 머리말 장식 등은 따로 필사의 과정을 추가했다고 전해진다. 초판본 <구텐베르크 성서> 180부의 세부적 내용은 각각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⁵⁾

현대 인쇄기와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인쇄기는 기술적인 면에서 크게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제본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으로만 비교해 보면 현대 기계식 인쇄기는 1분에 800~3,200장 가량 인쇄할 수 있어 매우 빠른 셈이다. 어쨌든 구텐베르크 인쇄기의 속도는 필사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면 혁명적으로 빨랐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활자 인쇄술은 급속히 퍼져서 1450년부터 1500년까지 50년 동안 10만 종의 책을 총 2,000만부 인쇄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이전 1,000년 동안 출판된 책보다 더 많은 양이라고 한다.⁶⁾

III. 활판 인쇄술이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

구텐베르크는 활판 인쇄술로 <구텐베르크 성서>를 대량 인쇄하여, 성직자와 지식인들만 읽을 수 있었던 성서를 대중화시켰다. 당시 성서를 비롯한 책들은 필사본이라 수량이 적어서 가격이 매우 비싸고 구하기가 힘들었지만, 활판 인쇄술이 서양에 등장하면서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쉽게 책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대량 생산된 책 중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작품도 있었고 이것은 르네상스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 외에 활판 인쇄술은 나중 즉, 1600년대 후반에 가서 대중 매체의 한 종류로서의 근대적 일간신문이 탄생하는 데에 기여했으며 종교개

2) 심길중 역, 어빙 팽 저(2002),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과주: 한울아카데미). p.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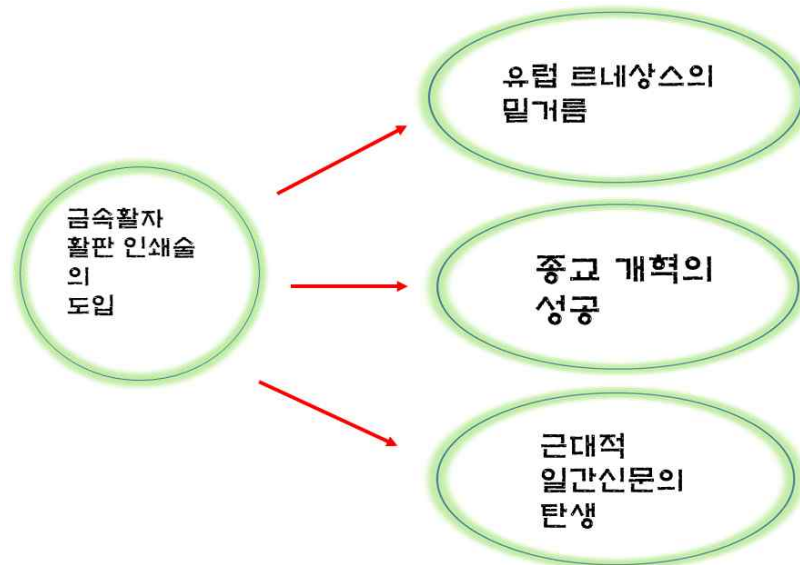
3) 김영기 역, 데이비드 크롤리, 폴 하이어 저(2018),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30.

4) Kovarik, B.(2016). 『Revolutions in Communication』,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p. 45.

5) 심길중 역, 어빙 팽 저(2002),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과주: 한울아카데미). p. 56.

6) 심길중 역, 위의 책, p. 57.

혁의 성공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그림 1 참고).



<그림 1> 활판 인쇄술의 도입으로 인한 유럽 사회 변화의 큰 흐름

1517년 독일의 신학대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기 위해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Wittenberg) 성당 교회의 문에 붙였다. 이 글은 활판 인쇄술에 의해 대량으로 인쇄되어 두 주 만에 독일 전역에, 그리고 두 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졌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논리를 널리 퍼트려 종교 개혁의 불씨를 지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유럽의 질서'를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 성경을 필사하던 시절엔 가톨릭 기준 총 73권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 때문에 성경 1질 값이 집 10채 값에 해당했으므로, 일반인들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또한 손으로 일일이 베껴서 만드는 필사의 특성상, 오자·탈자 및 왜곡의 여지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을 바로잡고 정론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스도교가 체제의 중심이었던 중세였던 만큼 이런 '교회의 독점'은 교회가 교리를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대량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보급되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종교인, 귀족만이 아닌 시민들도 책을 가질 수 있다는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루터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의 젊고 개혁적인 성직자들이 성경을 자국민의 언어로 번역해 출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도 자국어로 번역된 읽기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기존의 교리해석을 반박하고 체제를 비판하기 쉬워지면서 기존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개혁의 성공에 큰 바탕이 되었다.⁷⁾

구텐베르크에 의한 활판 인쇄술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기존 가톨릭 체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번역된 가톨릭 자체 공인 성경과 기도서 미사경본을 각 지방 성당에 대량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톨릭이 하나로 뭉치고,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효율적으로 개신교에 반박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종교개혁의 대항세력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가톨릭 측과 개신교 측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간 전쟁을 하기도 했다.

7) 김영기 역, 데이비드 크롤리, 폴 하이어 저(2018).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60.

본격적 종교 전쟁이라기보다는 양측을 지지하는 봉건 제국 왕들의 전쟁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개신교 신자 A가 성경을 근거로 가톨릭을 비판하고, 가톨릭 신자 B가 성경을 근거로 개신교를 비판하는 식의 일이 가능해졌다. 인쇄술을 통한 책의 대중화가 그동안 무지했던 민중의 지식수준 향상에 폭발적인 가속을 붙였기에 가능해진 풍경이다. 이런 것들이 인쇄술 자체가 가져온 삶의 방식이다.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기는, 『중이』라는 미디어를 대량 생산한 후에 대중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미디어로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것이다.⁸⁾

IV. 유럽 사회에서 금속활자 인쇄술이 가져온 4대 인쇄 미디어: 책 / 뼈라 / 포스터 / 팸플릿

인쇄술 발명 이전에는 필사를 통한 값비싼 방법을 써야 했다. 동일한 글씨체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고 결국 책은 돈 있는 자들의 자랑거리 정도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1. 책(Book)의 양산

인쇄술은 책 양산을 가능하게 하여 가격을 떨어뜨려 사람들이 지식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금속활자 발명 전 유럽에서 500~1400년대까지 필사된 책의 총량은 대략 10만 여권으로 추산된다. 인쇄술 발명 후 불과 50년 사이에 유럽 전역에서 1,500~2,000만 권이나 되는 책이 생산되었다. 이는 이전 인류가 생산한 책의 숫자보다 더 많은 양이다<표 1 참조>.

<표 1> AD 1500년까지 출판된 책의 총량 변화

유럽 사회에서 출판된 책의 총량 변화	
AD 500-1450년	10만여 권
AD 1455-1500년	1천5백만 권 ~ 2천만 권

출처: Kovarik, B.(2016). *Revolutions in Communication*,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p. 45.

8) 김영기 역, 데이비드 크롤리, 폴 하이어 저(2018).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61.

<표 2> 유럽 각국의 출판현황(1500년까지)⁹⁾

유럽 국가명	인쇄된 도서 종수
네덜란드	1,110 종
벨기에	1,268 종
이탈리아	10,557 종
독일 / 오스트리아 / 스위스 독일계	10,486 종
프랑스 / 스위스 프랑스계	5,437 종
스페인 / 포르투갈	1,107 종
영국	412 종

출처: I.S. Akcomak etc.(2014), “WHY DID THE NETHERLANDS DEVELOP SO EARLY? THE LEGACY OF 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 *The Economic Journal*, 126 (June), 821-860.

구텐베르크 이전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내에 300권 정도만 소장되었다고 전해지며, 영국 캔터베리 대성당 안에 2천권 정도 소장되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 1455년부터 1500년까지 단 45년간 출판된 책이 1천5백만 권에서 2천만 권정도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양이 증가한 것이다. 출판의 활성화는 바로 문맹률의 개선과 발전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중세 유럽 사회의 문맹률

구텐베르크 이전	90% 이상
구텐베르크 이후	50% 정도

출처: Kovarik, B.(2016). *Revolutions in Communication*,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p. 46.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책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이전 같으면 수도원이나 부잣집에서나 장만할 수 있었던 책들을 개인이 손쉽게 소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식의 전파가 급속도로 빨라졌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철학이나 과학을 연구하고 발표 및 정리해서 출간하여 학자 간에 새로운 발견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학문상의 '촉매 작용'이 활발해졌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유럽 사회의 문맹률도 크게 개선되었다. 구텐베르크 이전과 이후의 문맹률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삐라(Bill)의 등장

유럽 사회에서 책과 함께 등장한 것은 삐라(Bill)이다. 삐라는 처음에 책 광고의 수단으로 등장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광고성 인쇄물이 바로 삐라(Bill)인 것이다. 책은 지식인을 위한 상품이

9) I.S. Akcomak etc.(2014), “WHY DID THE NETHERLANDS DEVELOP SO EARLY? THE LEGACY OF 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 *The Economic Journal*, 126 (June), 821-860. p. 834에 있는 도표를 재편집.

었고, 문자로 된 책 광고물로서 빠라가 상용된 것은 유럽 사회의 변화를 의미했다고 봐야 한다. 빠라의 어원은 라틴어 Bull(기록/인장)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로마나 독일 황제의 교서를 의미하는 용어이며, 일반적으로는 도장을 찍은 문서나 공식적인 서류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세계 최초의 책 광고 빠라는 1466년 독일 슈트라스부르크의 하인리히 엔게스타인이 제작한 책 광고 빠라를 최초로 인정하는 편이다. 영국 최초의 빠라는 윌리엄 캅스틴(Caxton)이 1477년 최초로 <솔즈베리의 파이> 책 광고를 위한 빠라를 만들었다.¹⁰⁾

빠라는 광고와 카탈로그(Catalog)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했으며, 원래 카탈로그는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나 물건의 제목이나 품목을 알파벳순으로 기록한 목록을 의미했다. 카탈로그는 그리스어로는 ‘등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빠라의 내용은 주로 자화자찬이거나,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초의 상품광고 빠라는 여성의 유행품인 비단양말 광고(1580년경, 파리)였다. 위조 금화를 경고하고, ‘육식금하는 날을 지키자’는 공공성 빠라도 있었으며(1481년, 독일), 영국 템즈강을 통행하는 배들에게 통행세를 징수하는 빠라도 있었다. 아폴로지(Apology설명/옹호)빠라도 있었는데, 신발 등의 새로운 발명품과 유사한 모조품의 제작을 금지하는 성명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나중에 유럽사회의 발명 특허 보호법령의 효시가 되기도 한다.¹¹⁾

3. 포스터(Poster)의 등장

유럽 사회에 빠라의 후속타로서 포스터가 등장하게 된다. 포스터(Poster)의 어원은 ‘포스트(Post기둥)에 뭔가를 붙이는 사람’이라는 뜻의 용어로서 포스터의 시작은 1481년 안톤 조르크가 독일에서 위조 금화 제작을 경고한 빠라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최초의 포스터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1491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을 구하자는 빠라를 최초의 포스터로 보기도 한다. 1491년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만들어진 <기사와 결혼한 인어 아가씨 이야기> 책의 빠라에 본문의 삽화가 그대로 나와 있어 이것을 포스터의 효시로 보는 견해도 있다.¹²⁾

4. 팸플릿의 등장

『팸플릿Pamphlet』이라는 말은 1세기에 『pamphila』라는 저술가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12세기에 『pamphilus』라는 라틴어로 된 시에서 시작되었다고도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인쇄술의 보급과 함께 종교 개혁가들이 선교의 수단으로 간단한 인쇄물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을 ‘flugschrift’라고 불렀다. ‘flug’는 ‘나는 것’ 또는 ‘날듯이 빠르게’라는 의미이고 ‘flugschrift’의 뜻은 ‘목적을 시급히 달성하기 위해 쓴 것’이라는 뜻이다. 주로 정치, 사상, 종교 등의 문제를 논쟁적 · 설교적 · 묘사적 · 풍자적으로 취급한 내용을 뜻했다.¹³⁾

《영국의 팸플릿》(1948)의 서문을 쓴 조지 오웰은 팸플릿을 “500단어나 1000단어로 된 것, 제본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읽히는 수 페이지짜리 인쇄물”이라 정의하였다.

팸플릿은 초기에는 대중의 교화를 위한 종교적인 홍보물로 시작되었으나, 차츰 일반 대중의 읽을거리로 발전하였다.¹⁴⁾

10) 강승구 외 역, 하루야마 유키오 저(2007), 『서양광고문화사』, (서울: 한나래출판사), p. 85.

11) 강승구 외 역, 위의 책, pp. 90, 91.

12) 강승구 외 역, 위의 책, p. 89.

13) 강승구 외 역, 위의 책, p. 93.

14) 강승구 외 역, 위의 책, p. 94.

팸플릿의 현대적 정의는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이, 보다 넓은 범위의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인쇄물’로서 오늘날에는 정치성을 띤 것과 함께 상업적인 PR을 위한 소책자로 인식되고 있다. 17세기 초 유럽에서는 신문이나 잡지도 처음에는 팸플릿의 형태를 띠었다가 오늘날처럼 변형, 발전되었다. 어느 시대에서나 서민들에게 정치, 사회, 생활 등의 변화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쇄물을 이용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팸플릿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영국에선 조합들이 이런 팸플릿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대의 상업조합이었던 『모험무역상회』가 대기업의 PR을 위한 것으로는 세계 최초로 팸플릿을 발간(1601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나중에 팸플릿은 뉴스를 실은 신문으로 발전하게 된다. 유럽 사회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은 15세기까지는 한 장짜리 필사본 신문에서 시작하여 금속활자에 의한 활판인쇄술 발달로 인해 몇 장짜리 팸플릿 형태의 신문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팸플릿은 유럽 사회에 근대적 신문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주요한 미디어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표 4> 종교개혁 직후 독일/스위스의 팸플릿 발행 현황(1517년-1530년)¹⁶⁾

도시 명	종교적 팸플릿 발행 종수	종교 성향
아우크스부르크	123 종	가톨릭
슈트라스부르크	68 종	프로테스탄트
뉘른베르크	41 종	프로테스탄트
비텐베르크	40 종	프로테스탄트
취리히	33 종	프로테스탄트
바젤	28 종	프로테스탄트
켈른	26 종	가톨릭
라이프치히	22 종	가톨릭
뮌헨	14 종	가톨릭

출처: J. Rubin(2014), “Printing and Protestants: An Empirical Test of the Role of Printing in the Reform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2014, 96(2): 270-286.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발행을 이룬 미디어는 책(Book)이라고 볼 수 있지만, 팸플릿 또한 많은 발행을 이룬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종교적 팸플릿이 많이 발행된 것인데, 종교개혁 직후 1530년까지 스위스의 취리히와 바젤에서도 30여종의 팸플릿이 발행되었음을 <표4>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가톨릭에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들 특히 요한 칼빈 같은 사람들이 스위스의 제네바와 취리히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팸플릿을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15) 강승구 외 역, 하루야마 유키오 저(2007), 『서양광고문화사』, (서울: 한나래출판사), p. 95.

16) J. Rubin(2014), “Printing and Protestants: An Empirical Test of the Role of Printing in the Reform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2014, 96(2): 270-286. p. 274에 있는 도표를 재편집.

V. 종교 개혁의 시작과 미디어의 발달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유럽 사회를 크게 변모시키는 모멘텀(momentum)이 된다.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시대적 변화를 초래한 파괴력에 비해선 이미 유럽 사회에서의 가톨릭의 병폐가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 종교개혁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붕괴시켰다고는 하지만, 교회 권위의 추락은 13세기 말 십자군 원정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또한 종교개혁의 결과로 세속적인 정치권력이 부상(浮上)되었다고는 하지만, 교권과 왕권의 구분은 5세기 말 교황 겔라시우스 1세(Gelasius I)에 의해 이미 공식화된 바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갑작스런 새로운 흐름이라기보다 존재하던 여러 균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한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은 있었다. 사보나롤라가 대표적인데,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 1452년-1498년)는 이탈리아의 도미니쿠스회 수도사이자 설교가이며 종교개혁가이다. 사보나롤라는 설교를 통해 피렌체 시를 개혁하고, 민주정치를 실시하려고 했다. 또한 당시 교황의 부도덕을 비난하고, 로마 가톨릭교회와 이탈리아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그는 교황에 의해 체되었고, 1498년 5월 23일 아침, 사보나롤라와 그를 따르던 두 명의 도미니코회 수도사들이 시뇨리아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이때 그의 정치철학이 후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 사람들은 없었다. 누구도 그로부터 근대 민족주의 운동의 영감이 잉태되고,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의 개혁의 열정이 시작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¹⁸⁾

얀 후쓰 (Jan Hus 1372-1415)도 보헤미아 종교개혁가(Bohemian Reformationist)인데, 16세기의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보다 앞서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투쟁한 보헤미아 왕국(현재의 체코)의 기독교인들의 대표 주자이었다. 얀 후쓰는 루터의 개신교적 사상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로마 교황청과 대항했지만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교황청에 의해 화형에 처해지고 만다. 종교개혁에 실패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200년 이상 중앙 유럽의 역사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¹⁹⁾

사보나롤라와 얀 후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루터는 종교개혁에 성공하고 이들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미디어가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1. 종교개혁의 성공 이유

첫째,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15세기 중엽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활판인쇄술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²⁰⁾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의 사례에서 보듯,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쇄물이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유통되는 인쇄물의 규모가 수백만으로 확대된 16세기 초, 그것도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이래 인쇄혁명을 주도한 독일에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독일어로 번역 출판되어 15일 만에 독일 전역에서 읽혀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즉 1517년에서 1520년까지 루터가 쓴 30종의 저술들이 30만 권 이상

17) 김택현 역, 에드워드 H. 카 저(2015),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글방), p. 69.

18) 김택현 역, 위의 책, p. 69.

19) 김택현 역, 위의 책, p. 70.

20) J.E. Dittmar(2011),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nomic Change: The Impact of the Printing Pres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 1161.

팔려나간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작부터 그 이전의 위클리프(John Wycliffe)나 얀 후쓰(John Huss)와는 다른 토대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루터의 저술은 유럽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루터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테스탄티즘에 관한 저술들도 활발하게 인쇄되어졌는데, 특히 팸플릿과 기독교적 교리에 관한 인쇄물 또한 많이 인쇄되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²¹⁾

둘째로는, 많은 인쇄물, 특히 책과 전단지 혹은 팸플릿 등의 인쇄물들이 루터의 개혁사상을 전파해주는 아주 중요한 미디어가 되어 주었다. 신학 교수였던 루터는 자신의 사상을 담은 책을 약 3년 동안 30종을 출판했으며, 총 판매된 부수는 30만권이 넘는데, 다음 <표 5>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 5> 루터의 저술과 활동 (1517년-1520년)

루터가 집필한 저술의 종	30종 (독일어 저술)
루터의 저술이 판매된 부수	총 30만 권

출처: Kovarik, B.(2016). *Revolutions in Communication*,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p. 47.

루터의 저술이 위와 같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럽 사회의 시민들이 루터가 집필한 저술을 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보나롤라나 얀 후쓰의 종교개혁에 관련된 저술은 남아있는 게 없다. 얀 후쓰는 루터보다 100년 전 사람이며, 사보나롤라도 50년 전 사람이다. 사보나롤라는 금속활자의 활판인쇄술의 개발이후에 활동하긴 했지만 인쇄술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독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활동했던 이탈리아까지는 활판인쇄술이 빨리 전파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금속활자에 의한 활판인쇄술이 시작된 독일의 마인츠 시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루터의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은 더욱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다. 인쇄물이 성행할수록 루터의 개혁적 아이디어가 시민들에게 빨리 어필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표 6> 프로테스탄티즘과 인쇄술의 발달과의 관계²²⁾

	인쇄술을 활발하게 진행한 도시들의 프로테스탄티즘 수용 여부
마인츠로부터 가까운 도시들	0.33***
비텐베르크로부터 가까운 도시들	-0.08

***는 99% 신뢰도 수준을 의미함.

위 <표 6>에서 마인츠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개발하고 활판인쇄술을 시작한 도시이며, 비텐베르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도시이다. 따라서 마인츠에 가까운 도시들은 활판인쇄

21) J.E. Dittmar(2011),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nomic Change: The Impact of the Printing Pres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 1164.

22) J.E. Dittmar(2011),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nomic Change: The Impact of the Printing Pres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 1164. 도표를 참고하여 재편집.

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루터의 개혁사상을 빨리 인쇄물로 만들어 전파함으로써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프로테스탄티즘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향이 높았다는 해석이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비텐베르크는 비록 종교개혁이 처음 시작되긴 했지만 활판인쇄술을 받아들이고 인쇄물 제작에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뒤처졌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위의 디트마의 연구는 10년 뒤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증명된다. 뵘너의 연구(2021년)에서도 활판인쇄술의 채택과 시계를 채택한 도시들이 종교개혁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정도에 대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약 100년에 걸친 상관관계 조사에서도 95% 신뢰도 수준의 상관관계가 측정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세 번의 조사에서 모두 다 상관성 30%를 넘고 있는 것이다<표7 참고>.

<표 7> 1500년대 시계와 활판인쇄술을 받아들인 도시들의 프로테스탄티즘 수용과의 상관관계²³⁾

	1530년대	1560년대	1600년까지
마인츠에서 가까운 도시들의 수용여부	0.33***	0.42***	0.36**

***는 99% 신뢰도 수준이며, **는 95% 신뢰도 수준임

루빈의 다른 연구(2014)에서도 책을 펴낸 도시들의 프로테스탄티즘 수용여부에 대한 조사결과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책을 많이 펴낸 도시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가톨릭 쪽에서 프로테스탄티즘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독일 각 도시에서의 책 출판과 프로테스탄티즘 수용 여부²⁴⁾

인쇄시설이 들어선 독일들의 10대 도시	1480년-1489년 사이 출판된 도서 종수	1530년 경 당시 도시들의 종교 성향	1600년 경 당시 도시들의 종교 성향
켈 른	441 종	가톨릭	가톨릭
아우크스부르크	405 종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스트라스부르크	364 종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뉘른베르크	359 종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라이프치히	284 종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바 젤	266 종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울 림	144 종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스페이어	126 종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뤼 벡	126 종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23) L. Boerner, J. Rubin & B. Severgnini(2021), "A time to print, A time to reform," *European Economic Review*, p. 15.에서 도표를 재편집.

24) J. Rubin(2014), "Printing and Protestants: An empirical test of the role of printing in the reform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2014, 96(2): 273에서 재편집.

마인츠	121 종	가톨릭	가톨릭
-----	-------	-----	-----

<표 8>에서 보면 출판 종수 2위였던 아우크스부르크 시가 1530년경에는 가톨릭이었으나 1600년경 프로테스탄트즘(개신교) 쪽으로 종교성향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출판 종수 5위였던 라이프치히도 1600년경에는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즘 쪽으로 성향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금도 라이프치히에 가보면 개신교 교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쾰른 같은 도시는 책을 많이 출판했지만 가톨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만 하다. 쾰른 대성당은 지금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2. 종교 개혁의 경제적 이유

종교 개혁이 1517년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올 세인트 성당 문에 붙인 95개조 반박문에서 시작되었지만 개혁사상을 받아들인 시민들 중에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 받아들인 경향도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활약했던 종교적 그룹들을 기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다(Iannaccone 1994, 1998; McBride 2008; Stark and Finke, 2000). 종교적인 단체들의 기업측면에서의 활동을 의미할 텐데, 예를 들면 신학 교수였던 루터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도서 출판이나 팸플릿을 찍어내기 위한 종교적 단체들도 출판기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런 측면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Iyer, 2016; Delacroix and Nielsen 2001).

종교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 가운데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베커(Becker, 2016)의 연구는 인쇄업체들의 경쟁적 관계가 개혁사상 전파에 있어 큰 요인이 되었으며, 특히 공급측면에서 개혁사상의 전파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한다.

<표 9> 개혁사상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분석²⁵⁾

개혁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차원에서의 요인들	* 인쇄업 조합들의 경쟁적 관계 * 오스만 투르크 족의 침입 * 종교개혁에 대한 유럽시민들의 의지 * 학생들의 학교 등록률
개혁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차원에서의 요인들	* 정치적 자치권 획득의 열망(로마 교황청의 압제로부터의 독립성 회복) * 귀족들의 후원 * 장자상속제 * 농업적 잠재력 * 수도원

출처: S. Becker, etc.(2016),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62: 1-25,

위의 <표 9>에서 보면, 공급차원에서 볼 때, 인쇄업 조합들의 경쟁적 관계는 개혁사상 전파에

25) S. Becker, etc.(2016),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62: 1-25, p. 8의 자료로부터 재편집.

매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인쇄업조합 측은 활판 인쇄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항목은 종교적 서적을 출판하는 일이나 루터의 개혁사상을 책이나 팸플릿으로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루터의 개혁사상에 100% 찬동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사상을 담은 책자나 팸플릿을 인쇄해서 판매하는 일은 인쇄업자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쇄업의 발달은 부의 축적과 함께 유럽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가는 근본적 지름길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인쇄업의 발달은 신문 산업의 발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될 것이었다.

<표 10> 활판인쇄술 채택과 도시 성장과의 지수 비교²⁶⁾

	도시 성장률 (1500년-1600년 사이)	도시 성장률 (1500년-1700년 사이)
금속활판 인쇄술 채택 여부 (1450년-1500년)	0.19***	0.26***
자유 지수 (Freedom Index)	0.27***	0.29**

출처: J. Dittmar(2011),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NOMIC CHANGE: THE IMPACT OF THE PRINTING PRES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1) 126, 1133-1172.

<표 10>에서 볼 때, 금속 활판 인쇄술을 채택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가 도시 성장률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상관관계의 지수의 수치는 그다지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99% 신뢰도 수준에서 나온 수치로서 0.19와 0.26은 다소 높은 상관관계로 추정된다.

디트마(2011)는 본인의 연구에서 도시성장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이 수리공식에서 보면 Y값은 바로 도시성장률 지수를 의미하며 i는 금속 활판 인쇄술 채택여부를 의미한다.

$$Y_{i,t} = \theta_i + \delta_t + \sum_{t=1300}^{1700} \alpha_t D_t T_i + X'_{i,t} \gamma + \varepsilon_{i,t} \quad 27)$$

Y : 도시 성장률

i : 금속활판 인쇄술 채택 여부

t : 시간 변수

θ_i : 도시 고정 효과

δ_t : 시간 고정 효과

D_t : 시간 간격을 위한 변수

α_t : 특정 기간 동안 활판인쇄술을 수용한 도시들이 향유했던 성장 이익

$X_{i,t}$: 공변량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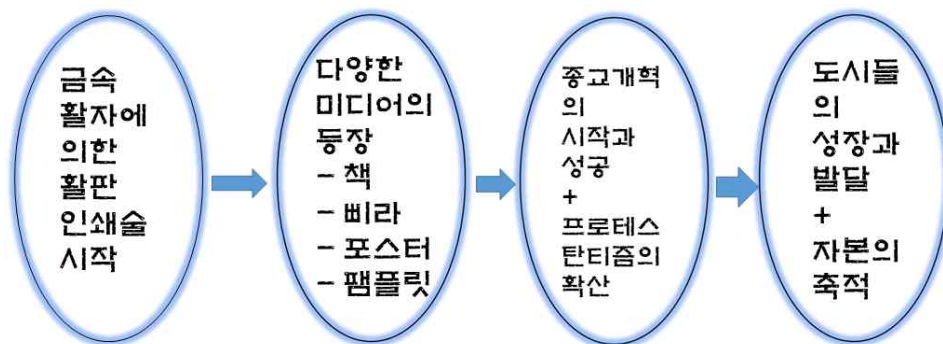
26) J. Dittmar(2011),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NOMIC CHANGE: THE IMPACT OF THE PRINTING PRES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1) 126, 1133-1172. p.1149의 도표를 재편집.

27) J. Dittmar(2011), 위의 글, p. 1150.

위의 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상의 간격에 의한 변수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금속 활판 인쇄술을 빨리 채택하고 수용한 도시들의 성장률은 그렇지 않은 도시들에 비해서 성장률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며, 도시적 기능상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지수 또한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디트마는 이 연구를 통해 하나의 수리공식을 제안했는데, 이러한 수리경제학 측면에서도 금속 활판 인쇄술이 유럽 도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음이 증명된다고 판단되어진다.

칸토니(2018)의 연구에서도 중세 유럽 사회 특히 독일 등지에서의 도시성장률은 그 도시가 프로테스탄트 지역이냐 아니면 가톨릭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중심의 지역도시일수록 교회나 성당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건축현황이 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위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다면, 금속 활판 인쇄술을 수용하고 채택한 지역도시들에서는 인쇄조합들이 인쇄물 제작을 통한 상업적 비즈니스를 활발히 일으킴으로써 도시의 자본적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프로테스탄트 경향을 지닌 지역도시들은 가톨릭 경향의 지역도시들보다 건축의 붐이 활성화되었다고 분석되어진다. 따라서 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그림 2>가 완성될 수 있다.



<그림 2> 금속활자의 시작으로 인한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

VI. 중세 유럽 사회에서의 대중 미디어 신문의 등장

1. 근대적 신문(Newspaper) 등장 직전의 유럽 사회에서의 신문 상황

로마시대 이후 귀족들 사이에는 뉴스의 교환이 성행하여 서한신문이 나오게 되었고, 독일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었다. 13, 14세기부터 15, 16세기에 걸쳐서 르네상스 · 종교개혁 · 오스만 투르크군(軍)의 유럽 침입, 신대륙 발견 등의 여러 사건이 일어나 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제후와 도시, 대학 등에서도 뉴스를 수집하는 일이 성행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소식 『뉴스News』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 고조되는 시기가 바로 1600년대의 유럽의 사회이다.

28) D. Cantoni(2018) etc., "RELIGIOUS COMPETITION AND REALLOC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SECULARIZATION IN THE PROTESTANT REFORM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8), 2037-2096.

원래 뉴스(News)의 어원은 ‘north, east, west, south’의 첫 글자가 모여 뉴스(news)라는 단어가 되었다. 즉, 사방의 모든 곳에서 일어난 새로운 소식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 단어는 중세 라틴어의 ‘nova,’ 옛 프랑스어의 ‘noveles’ (지금은 nouvelles 보도, 통신)와 같은 계통으로 영어에서는 독일의 ‘neues’가 변한 ‘news’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초에는 ‘newes’와 ‘news’ 둘 다 사용되었으며, 이 당시 해외 뉴스를 모아 만든 팸플릿의 표제가 <뉴스Newes>였다.²⁹⁾ 뉴스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로마 시대에 손으로 써서 붙이거나 배달했던 일보(日報)가 있었는데, 3세기경부터 자취를 감추었다가 12세기에 이르러 ‘필사(筆寫) 뉴스’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 200년쯤 후에는 베네치아에서 좀 더 발달된 것이 보인다.

필사 뉴스 외에도 지배층이나 수도자들, 학자들 사이에 서로 교환되어 읽혔던 ‘편지에 의한 뉴스(news letter)’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 유럽에 인쇄술이 보급되자 여러 페이지짜리 뉴스 인쇄물이 범람하였다. 인쇄술이 보급된 직후인 1462년 쾰른의 <디히트리히 대주교의 선언>과 1492년 스페인의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 여왕이 그라나다를 공략한 뉴스를 인쇄한 것이 뉴스를 처음 인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⁰⁾

독일에선 공식적인 근대적 일간신문이 나오기 전인 1610년 경 까지 신문의 형태를 띤 뉴스 팸플릿이 800종이나 발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기간행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1556년 경 독일에서 간행된 《새로운 뉴스 Neue Zeitung》 정도가 정기성을 띤 것으로 사료된다.³¹⁾

2. 서한(書翰)신문과 필사(筆寫)신문의 등장

중세 유럽의 상인들은 상업적인 목적, 즉 잉여농산물에 대한 정보수집목적에 따라 각지에서 발생하는 뉴스를 수집하였다. 유명한 것으로는 독일 푸거가(Fugger 家)의 <푸거 차이통겐 Fugger Zeitungen> 이 있다. 이 신문은 15세기 중반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푸거일가가 발행한 필사신문으로서 유럽 각 지역의 농산물 소식을 묶어 전하고 있다.³²⁾

서한신문이 발전하여 필사신문(筆寫新聞)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1450년대 이후 인쇄술이 발달하자 서한신문이나 필사신문 중에서 흥미로운 내용이나 상인들을 비롯하여 각지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모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부정기 인쇄신문을 『플루크 블라트(Flug-Blatt)』라고 부른다. 이것은 15세기말에 나온 유럽 최초의 인쇄신문으로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큰 신문이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한 장짜리의 신문이었다. 그 후 17세기로 들어서면서 근대적 신문으로서의 새로운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한다.³³⁾

3. 근대적 신문의 등장

근대적 신문은 먼저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1609년 독일에서 세계 최초의 주간신문인 《렐라치온 Relation》과 《아비소 Aviso》³⁴⁾가 나오고, 이어서 네덜란드(1618년경)·영국(1622)·프랑스(1631) 등에서도 주간신문이 발행되었다. 독일 《렐라치온 Relation》은 세계 최초로 정기적으로 간행된 주

29) 강승구 외 역, 하루야마 유키오 저(2007), 『서양광고문화사』, (서울: 한나래출판사), p. 97.

30) 강승구 외 역, 위의 책, p. 97.

31) 강승구 외 역, 위의 책, p. 99.

32) 심길중 역(2002), 『메스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과주: 한울아카데미), p. 34.

33) 김영기 역(2018),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49.

34) 아비소는 렐라치온이 정기신문이 된 이후 나중에 쓰게 된 별칭으로 분석된다.

간신문이었는데 독일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발행되었다. 이 《렐라치온 *Relation*》의 창간호에는 놀랍게도 이탈리아 천체물리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의 망원경 발명소식을 전하고 있다.

“갈릴레오 선생이 망원경을 발명했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30마일 떨어진 곳을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가깝게 볼 수 있다 합니다.”³⁵⁾

프랑스에서도 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하는데, 1631년 프랑스에선 테오프라스트 르노도(Theophraste Renaudot)의 광고국 사무실에 최초의 신문 <가제트 드 프랑스 *Gazette de France*>의 첫 인쇄를 축하하는 행사가 벌어진다. 루이 13세와 리슐리 재상이 이 신문의 후견인 이었으며, 국왕은 허가장에서 “어디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 신문을 간행하며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르노도와 그 후계자에게 부여한다.”라고 언명하였다. 1631년 5월30일 <가제트 드 프랑스>에는 프랑스 뉴스가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았으며, 발행소, 발행자의 이름도 없었다. 사실 <가제트 드 프랑스>는 광고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루이 13세는 이 신문에 대하여 소년과 같은 호기심을 느껴 짧은 기사를 직접 써서 인쇄소로 가져와서는 그것이 활자화되는 것을 즐겼다는 일화도 남아 있다.³⁶⁾

4. 세계 최초의 일간신문 등장과 일간신문의 시대가 열림

1660년에는 세계 최초의 일간신문인 《라이프치거 차이통겐 *Leipziger Zeitungen*》이 독일에서 발간되었으며, 18세기로 들어서면서 각국에서 일간지가 발행되고, 근대 신문의 기초가 구축되었다. 이 신문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라이프치거 차이통겐》의 후신인 《라이프치거 폭스차이퉁 *Leipziger Volkszeitung*》이 이 신문을 대신하고 있다(Kovarik, 2016)

영국에서는 영국 최초의 일간지 《데일리 커런트 *Daily Courant*》가 창간된 것은 1702년이었고, 《더 타임스 *The Times*》의 전신인 《데일리 유니버설 레지스터 *Daily Universal Register*》가 1785년에 창간되었다. 영국에서는 1695년에 신문의 독점 발행권이 폐지되면서 출판의 자유가 신장되어 신문 붐이 일어났다. 일간 신문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것이다. 1702년에는 《데일리 커런트 *Daily Courant*》, 1711년에는 《스펙테이터 *Spectator*》, 1719년에는 《데일리 저널 *Daily Journal*》, 1730년에는 《데일리 애드버타이저 *Daily Advertiser*》 등의 일간 신문이 우후죽순처럼 창간되었다.³⁷⁾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의 저자 다니엘 데포가 등장하는 《데일리 커런트 *Daily Courant*》는 영국 일간 신문의 효시로 세계 신문 역사상 그 이름을 남겼으나, 저널리즘의 역사에서는 그 2년 후 창간된 다니엘 데포의 《더 리뷰 *The Review*》를 그 선구자로 인정하고 있다. 주간 평론지였던 이 신문에서 명성을 떨쳤던 다니엘 데포는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이라는 소설의 작가로 후세에 더욱 잘 알려졌다, 그를 영국 저널리즘의 아버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공적을 남겼다.³⁸⁾

35) 강승구 외 역, 하루야마 유키오 저(2007), 『서양광고문화사』, (서울: 한나래출판사), P. 99.

36) 강승구 외 역, 위의 책, P. 111.

37) 강승구 외 역, 위의 책, p. 141.

38) 김영기 역, 데이비드 크롤리, 폴 하이어 저(2018),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76.

5. 17세기 유럽에서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 사상의 태동

17세기 유럽 사회에 신문이 등장하면서 그 신문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존 밀턴이다. 존 밀턴(John Milton)이 1644년 《아레오파지티카 Areopagitica》를 발표하여, ‘사상의 공개시장’ 또는 ‘자기조정 작용(the self-righting process)’과 같은 현대적 언론자유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영국은 1688년의 명예혁명을 거쳐 1695년에 와서는 특허검열법이 폐지됨으로써 세계 최초로 언론의 자유가 확립되었다.³⁹⁾

밀턴은 이 책에서 거짓과 진리가 열린 자유 시장에서 대결과 경쟁을 벌인다면 필연적으로 진리가 승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밀턴은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가 억압하던 자유 중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떤 자유나 인권보다 훨씬 중요한 천부적 인권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억제하는 종교나 정치적 권력은 그야말로 악이며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 Areopagitica》는 세계 최초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한 저술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은 그리스어 『아레오파고스 Areopagos』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법정” 혹은 “의회”를 뜻하는 말이다. 세계 최초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저술에서 밀턴의 주장⁴⁰⁾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나에게 어떤 자유들보다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독서를 규제하는 것은 천사를 가장한 악마가 하는 것이다.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선택적 능력 즉 이성이다. 따라서 어떤 거짓의견이라도 자유경쟁을 통해 불의가 걸러지고 진리가 채택될 수 있다. 결국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선택의 자유이다.”』⁴¹⁾

영국에서 시작된, ‘밀턴의 표현의 자유’로 압축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1649년의 인민협약(The Agreement of the People)에서 선언되었고, 1695년에 검열법이 폐지되면서 비로소 확립되었다. 영국의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은 1689년 12월 제정된 영국의 의회제정법인데, 헌정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권리장전은 1688년 12월 명예혁명(무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법률인데, 부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정하는 법률』이라 되어있다. 그 내용으로, 『영국의 절대주의 종식』, 『의회의 동의 없이 군대 동원 금지』, 『의회에서의 언론자유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이런 영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민의 권리 확립은 영국을 의회정치가 확립되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고,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과 독립선언(1776) 및 미연방헌법(1791)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또한 프랑스 대혁명(1789)과 프랑스 인권선언(1789) 등에도 크게 영향 미치게 된다. 미국의 연방헌법인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또는 Amendment I)는 종교의 설립을 주선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이다. 『권리장전 Bill of Rights』을 구성하는 10개의 개정안 중 하나로 1791년 12월 15일 채택되었는데, 가장 핵심 골자는 언론의 자유를 막는 그 어떤 법도 미연방정부가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상은 결국 유럽에서의 인쇄술의 발달과 신문의 발달과 표현의 자유사상의 발전 및 영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⁴²⁾

39) 김택현 역, 에드워드 H. 카 저(2015),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글방), p. 89.

40) Kovarik(2016), 『Revolutions in Communication』,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pp. 25-29.

41) Kovarik, 위의 책, pp. 27-28.

VII. 15-18세기 유럽의 사회변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

1450년대 시작된 금속활자의 개발은 16세기로 이어지면서 유럽 사회에 많은 변화를 안겨다 주었으며, 1517년 종교개혁의 성공은 유럽 사회에 가톨릭을 대신할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을 가져다주었고 그 배경에는 각종 다양한 미디어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톨릭을 대신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은 유럽 사회에서 도시개발과 성장을 촉진시켰으며 부의 축적을 가져오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17세기 후반 본격적인 대중 미디어인 근대적 일간신문을 탄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유럽의 이런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는 미디어의 발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된다. 금속활자 개발 이후 책/책자/포스터/카탈로그/팸플릿 등 소형 인쇄 미디어의 개발과 홍수는 결국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성공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개발로 인한 과학의 발달이 또한 유럽 사회를 변화시켰다. 나침반과 망원경의 개발로 인해 항해와 과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새로운 발견에 대한 뉴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사람들은 그러한 뉴스를 전해줄 대중적 미디어를 고대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근대적 일간신문의 탄생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1609년 독일에서 발간된 최초의 정기적 주간신문 《렐라치온 Relation》에서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망원경 개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그만큼 유럽 시민들은 새로운 소식에 목말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 근대적 신문이 자리 잡게 된다. 대중 미디어 신문의 등장으로 인해 일간신문은 광고와 함께 유럽 사회 중심 미디어로 등극하게 되며, 책과 신문의 대중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한다. 왕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을 책과 신문을 통해 표현하게 되고 그것이 곧 국민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지만 결국 왕정체제의 붕괴로 귀결되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의 혁명은 왕정체제의 몰락을 가져왔는데, 그 중심에도 결국은 대중적 미디어인 신문의 힘이 도사리고 있다.

금속활자에 의한 대중적 미디어의 발달과 종교개혁의 성공과 지역도시들의 발달과 자본의 축적은 결국 사회의 뉴스를 전하기 위한 신문의 개발과 발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필요가 함께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근대적 신문이 1600년대 중후반에 발달되기 시작했지만, 이때엔 벌써 유럽 사회가 인쇄술로 인한 자본의 축적이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은 <그림 2>에 근거하여 연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신문발행 사업이 향후 유럽 사회의 중심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신문의 발달은 결국 유럽의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왕의 권위주의에 도전함으로써 언론자유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42) 심길중 역, 어빙 팡 저(2002),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pp.37-42.



<그림 3> 17,18세기 유럽의 도시발달과 신문발행이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

VIII. 맺음말

본 연구가 유럽의 역사적 궤적의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긴 하지만, 구텐베르크에 의해 개발된 금속활자에 의한 활판 인쇄술의 도입으로 인해 가져온 엄청난 변화는 유럽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파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우선 각종 다양한 대중적 미디어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편지 같은 서한문이나 필사본에서 의해 뉴스를 전하던 소식지들이 정식적인 서한 인쇄물이나 필사신문으로 변모한 것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책들이 출판되기 시작한다. 이런 출판의 붐물은 유럽 사회를 변화시키는 신호탄이었으며, 유럽인들의 지식의 축적과 사상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런 여파로 인해 1517년에 시작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책과 인쇄물로 출판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사상을 책과 인쇄물로 읽고 그를 지지할 수가 있었다. 또한 인쇄업자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루터의 개혁사상을 인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인쇄업의 활성화는 루터뿐만 아니라 다른 개혁자들(칼빈, 츠빙글리 등)의 사상까지도 전파되게 만들었다. 이런 앞 다퉈 인쇄업의 활성화는 결국 루터의 종교개혁을 성공시키기에 충분했으며, 17세기 유럽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

인쇄술의 발달은 유럽 사회에서 루터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상의 발전도 이루게 만든다. 영국의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적인 정치사상이나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발전도 결국은 인쇄술에 의한 출판의 힘이 뒷받침해주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및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 등을 통한 정치사상 및 언론자유사상의 근간은 현대사회인 지금도 고찰해야 할 명저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발전은 유럽 사회에 신문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고, 활판 인쇄술을 기반으로 한 1660년경의 근대적 일간신문의 탄생은 결국 유럽 시민들의 지식적 계몽은 물론이고 왕권의 권위에 도전하게 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민중혁명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결국은 18세기 유럽 사회엔 표현 및 언론자유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팽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쇄술 발달로 인한 종교 개혁의 성공은 유럽 사회를 가톨릭 지지 도시와 프로테스탄트 지지 도시로 구분하게 만들었고, 인쇄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연결되게 만들었다. 인쇄술의 활성화와 프

로테스탄트 지역도시에서의 건축 활성화와 발전의 속도는 가톨릭 지역을 훨씬 능가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도출되었다. 인쇄술의 발전과 종교 개혁의 성공, 자본의 축적, 건축의 활성화 및 책 출판과 신문발행의 활성화는 중세 유럽의 사회가 근대 유럽의 사회로 변모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유럽의 근대사회에서 활약한 신문의 역할과 파워(power)를 자세히 다 다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음 연구로 미루어야 할 것이며, 이 연구의 한계로 남겨 두게 된다.

■ 참고문헌

- Akcomak I.S. etc.(2014), “WHY DID THE NETHERLANDS DEVELOP SO EARLY? THE LEGACY OF 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 *The Economic Journal*, 126 (June), 821-860.
- Becker S., Pfaff, S., & Rubin, J.(2016),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62: 1-25,
- Becker, S., Rubin, J., & Woessmann, L.(2020), “Religion in Economic History: A Survey,” IS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Discussion Paper(Working Paper), 2020 June, 1-83.
- Boerner, L., Rubin, J. & Severgnini, B.(2021), “A time to print, A time to reform,” *European Economic Review*, (2021) 138: 1-20.
- Cantoni, D. Dittmar, J.E. & Yuchtman N.(2018), “RELIGIOUS COMPETITION AND REALLOC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SECULARIZATION IN THE PROTESTANT REFORM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8): 2037-2096.
- Delacroix, J., Nielsen, F.(2001), “The beloved myth: Protestantism and the rise of industrial capitalism in nineteenth-century,” *European Sociology Forces*, 80(2), 509-553.
- Dittmar, J.E.(2011),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NOMIC CHANGE: THE IMPACT OF THE PRINTING PRES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1) 126, 1133-1172.
- Iannaccone, L.R.(1994), “Why strict churches are stro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5), 1180-1211.
- Iannaccone, L.R.(1998), “Introduction to the Economics of relig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3), 1465-1495.
- Iyer, S.(2016), “The New Economics of Relig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4(2), 395-441.
- Kovarik, B.(2016). 『Revolutions in Communication』,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 McBride, M.(2008), “Religious pluralism and religious participation: a game theoretic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4(1), 77-106.
- Rubin, J.(2014), “Printing and Protestants: An Empirical Test of the Role of Printing in the Reform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2014, 96(2): 270-286.
- Stark, R., Finke, R.(2000), 『Acts of Faith: Explaining the Human Side of Religion』, University of California.
- 강승구, 김관규, 신용삼 역, 하루야마 유키오 저(2007), 『서양광고문화사』,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영기 역, 데이비드 크롤리, 폴 하이어 저(2018).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택현 역, 에드워드 H. 카 저(2015),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글방).
- 심길중 역, 어빙 팡 저(2002),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에너지소비와 출산율*

이필렬**

Energy Consumption and Fertility rate

Lee , Pil Ryul

◁ 목차 ▷

- | | |
|-------------------------|------------------|
| I. 머리말 | V. 인구, 출산율, 기후변화 |
| II. 산업혁명 이후 세계 인구 | VI. 맺는말 |
| III. 에너지소비와 출산율: 국가 사례들 | 참고문헌 |
| IV. 출산율 감소와 세계 인구 | |

I. 머리말

1972년 스톡홀름에서는 국제연합이 주최한 세계 최초의 인간환경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두 사람의 미국 생물학자 폴 얼릭(Paul R. Ehrlich)과 배리 커머너(Barry Commoner)가 참석했다. 1968년 인구폭탄(The Population Bomb)이라는 책을 출판해 널리 이름을 알린 얼릭은 이 회의에서 인구증가가 지구 생태계 파괴의 주된 동력이고, 인구증가가 당시 진행되던 것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지속되면 생태계와 인류문명에 파국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전지구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의 주장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다양한 성향의 참가자들로부터 동의도 얻었지만, 그와 대척점에 서 있던 좌파 진영의 커머너는 인구증가가 자체가 환경문제 악화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기술 발달이 수십억의 증가하는 인구를 충분히 먹여살릴 수 있을 것이며, 정말 문제되는 것은 부자들의 낭비적 소비라고 주장했다. (Emmelin 1972; Weyler 2018)

50년 전에 나온 두 사람의 주장은 당시보다 강도가 조금 약해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부 환경주의자와 좌파진영을 대변하는 견해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여기에 인류문명의 미래와 관련된 또 하나의 우려가 덧붙여지는데, 그것은 얼릭의 주장과는 반대 방향의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것으로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을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와 관련된 것이다. 물론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는 아직 환경문제의 중심에 위치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우려만큼 크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국지적으로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고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7년 한국을 방문한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라가르트(Christine Lagarde)는 출산율이 매우 낮은 한국에 대해 “집단적 자살현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2008년 인구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대해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높아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결국 소멸할 것이며 한국과 홍콩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라가르트 2017; The Street 2022)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폴 얼릭은 인구폭탄이 나온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구의 적정인구는 20억 이하이며, 70억이 넘는 현재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구 자원을 수탈한다면 인류문명은 수십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Carrington 2018).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 우파나 좌파 모두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 좌파에서는 50년 전의 커머너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진정한 과제는 부의 분배이고, 지구 전체의 인구를 조절해야 한다는 생각은 인종적 차별과 새로운 우생학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Pearce 2014; Monbiot 2015; Fendley 2020) 우파에서는 대체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세계인구 조절을 위한 민간기구들을 제외하면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구들이 인구조절의 목표로 삼는 지역은 선진국이 아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이미 인구유지선 아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심 지역은 합계출산율이 아주 높은 아프리카 같은 곳이다. 1)

출산율이 줄어드는 선진국에서 우파는 물론 좌파의 경우도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증가시켜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갈 것인가이지, 인구감소가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라는 위기를 완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는 아니다. 유럽에서는 진보 정부가 여성에게 출산 장려금을 주는 데 더 적극적인데, 이는 진보가 분배에 더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인구유지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진보와 보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출산율을 높이려 상당히 큰 액수의 예산을 투입하고, 정치인들이 종종 시대착오적 시각을 가지고 여성들의 출산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필렬 2014).2)

이제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선진국에서 다양한 정책과 예산투입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의 결과 출산율이 인구유지선(replacement fertility, 2.1명)에 근접하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국지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구 전체에서 인구감소가 올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구감소를 막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의 에너지 사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 물음들의 답을 찾아보는 시도를 할 것이다.

1) <https://populationmatters.org/solutions> 참조

2) 예를들어 2016년 당시 여당 대표 김무성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세자녀 갖기 운동”을 벌이고 조선족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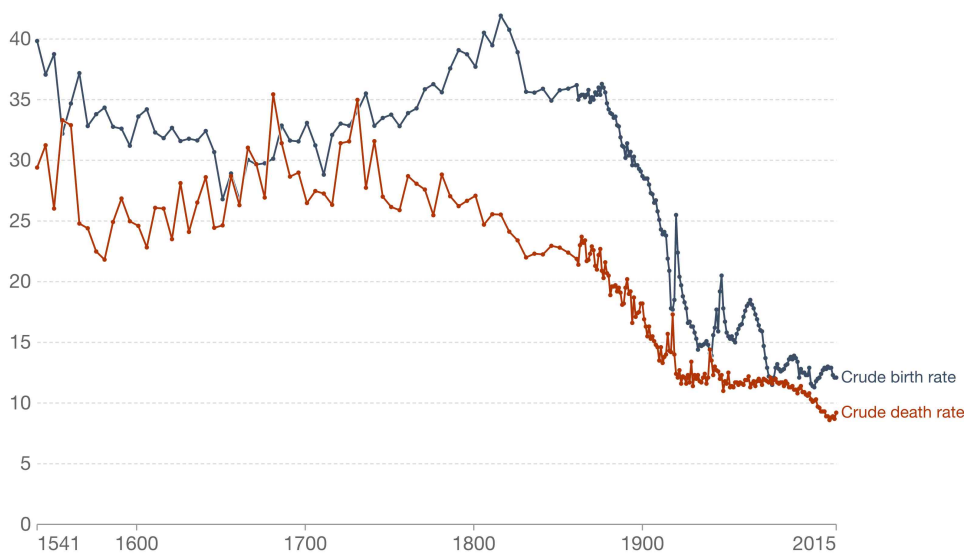
II. 산업혁명 이후 세계 인구

18세기 산업혁명 이래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출산율은 지역적 시차를 두고 지구 전지역에서 감소해왔다. 출산율이 감소했는데도 인구가 계속 증가한 이유는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의 증가 때문이었다.³⁾ 5세 이하 유아사망률이 급속히 감소하고, 영양공급과 보건위생 상태가 개선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기대수명이 늘어나 사망률보다 출생률(birth rate)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인구는 1700년의 약 6억에서 1800년에는 약 9억 8천만, 1900년에는 16억 5천만명, 2015년에는 74억명으로 증가했다. UN에서는 이러한 증가추세가 2100년까지 지속될 것이고, 그때는 세계 인구가 110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는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기 시작하여 유럽 지역에서는 20세기를 전후로 60년 동안 약 40%의 감소율을 보이게 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럽보다 늦었지만 산업화가 시작되고 진행됨에 따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⁴⁾ 이들 산업화되는 지역의 출산율은 산업화 초기 50년간 이상 (영국, 스웨덴) 또는 수십년 동안 (일본, 독일) 거의 변동이 없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Yoichi Okazaki 1963; <https://ourworldindata.org/fertility-rate>),

The demographic transition, England and Wales, 1541 to 2015

Birth and death rate are expressed per 1,000 of the population



Source: Our World In Data based on Wrigley and Schofield (1981), Mitchell (2010), and UK ONS (2016)

Note: Death rate excludes military losses in 1915-1919; 1939-1946

OurWorldInData.org/world-population-growth/ - CC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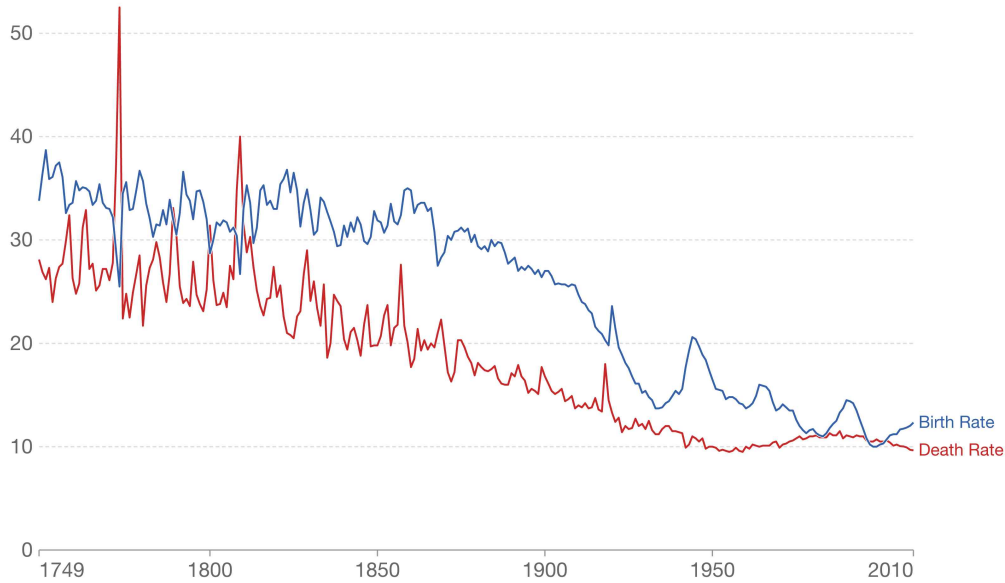
그림 1 영국,웨일즈의 출생률과 사망률 변동

- 3) 기대수명은 0세 출생자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0세의 기대여명이다.
- 4)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출산율이란 용어는 모두 합계출산율을 의미한다.

The demographic transition: Decline of the death rate followed by a decline of the birth rate, Sweden, 1749 to 2010

Our World in Data

Both the birth and death rate are expressed per 1,000 of the population



Source: Brian Mitchell - International Historical Statistics

OurWorldInData.org/world-population-growth/ • CC BY

그림 2 스웨덴의 출생률, 사망률 변동

이 기간동안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사망율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 후 노인이 크게 늘어나고 기대 수명의 증가가 한계에 도달하면 사망률이 출산율을 앞지르게 되어 인구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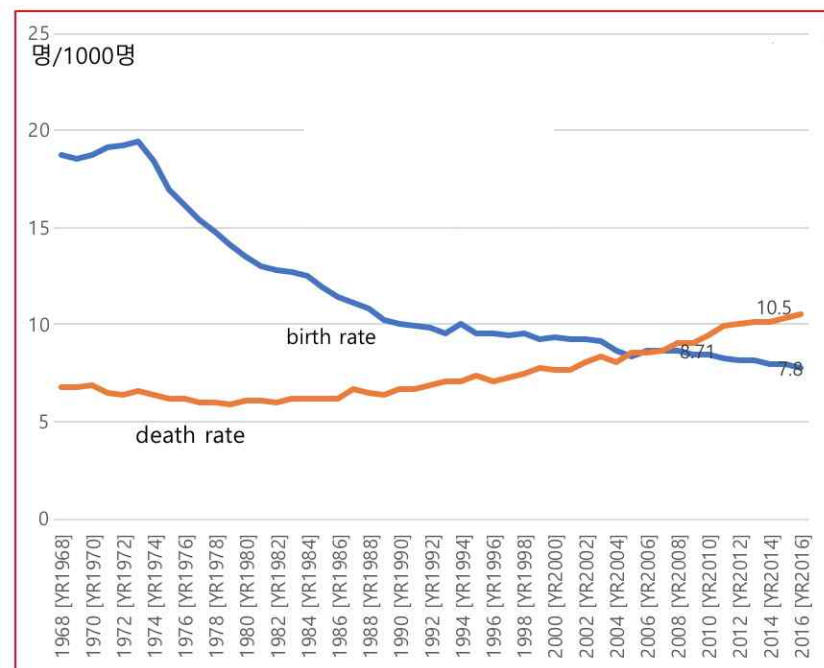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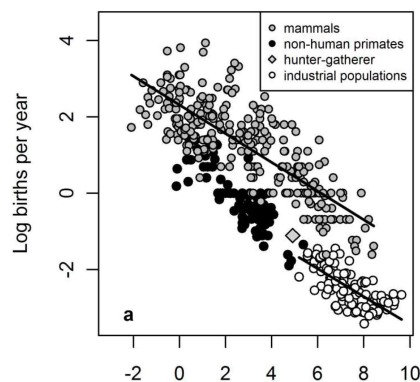


그림 3 일본의 출생률과 사망률 변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산업화와 함께 진행된 인구변동 추이의 원인에 대한 탐구는 일인당 소득의 증가를 기준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매우 경쟁적인 환경에서 후손이 누릴 수 있는 물질적 부를 최대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나오기도 하지만 (Mulder 1998), 일인당 에너지 소비와 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수행할 수도 있다. 특히 산업화가 에너지 사용의 혁명적인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은 산업화 이후의 출산율 변화가 에너지 소비와 상관관계가 있으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포유류에서는 크기(몸무게)와 출산율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포유동물은 물질대사 에너지(metabolic energy)가 높을수록, 달리 말하면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새끼를 적게 낳는다. 사람보다 13배 정도 무겁고 이에 거의 비례해서 하루에 24,000 kcal의 에너지를 대사로 소비하는 기린은 평균 25년, 최대 36년 가량 살면서 가임기간 동안 일년에 평균 0.6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이에 비해 무게가 45 그램밖에 안되는 생쥐는 하루에 19 kcal를 소비하고, 5년을 사는 동안 매년 8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다. 포유동물의 경우 몸무게, 에너지소비, 수명, 출산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Max planck Gesellschaft 2012 ; Burger 2011).

이러한 포유동물의 에너지소비와 출산율의 관계를 인간에게도 적용해볼 수 있는데, 이때 인간의 경우에는 포유동물과 달리 신체유지를 위한 대사 에너지 소비보다 대사의 에너지(extra-metabolic energy)를 훨씬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대사 에너지가 아니라 대사의 에너지 소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출산율과 대사의 에너지소비의 상관관계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인간을 다른 포유동물과 같다고 취급하여 선진국의 여성 한명이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를 음식물로 섭취한다고 보면, 그녀는 몸무게가 코끼리 두마리에 해당하는 10톤이 넘을 것이고, 6,70세까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포유동물은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할수록 몸무게가 더 크고, 더 오래 살고, 더 늦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새끼를 낳기 때문이다. (Max planck Gesellschaft 2012)

이 결과에 따르면 포유동물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인간의 경우에도 에너지소비와 출산율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성립하고, 이 관계가 포유동물의 에너지소비와 출산율의 관계와 연결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동물에서도 에너지소비와 출산율 사이에 함수 관계가 성립하듯이, 인간의 경우에도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Burger 외 2011)에서 볼 수 있듯이 수렵채취인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연간 출산율은 에너지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했다. 이는 국가간 비교에서도 나타나고, 한 국가 안에서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소비의 변화와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Ⅲ. 에너지소비와 출산율: 국가 사례들

에너지소비가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1950년부터 2000년 경까지 에너지소비의 증가에 따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는 인도와 아프리카 중부의 탄자니아나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나라도 예외에 속하지 않는다. 인도의 경우 2020년 현재 일인당 에너지소비가 선진국의 10 분의 1 수준이지만, 2018년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는 6,805 kWh로 1970년의 1,366 kWh에 비해 5 배 가량 증가했다. 출산율은 이와 반대로 1970년에 5.587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8년에는 2.22로 감소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우 1980년의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1,872 kWh 였지만, 2018년에는 이 수치가 4,888 kWh로 증가한다. 출산율은 1980년에 6.06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4.43으로 감소한다. 대표적인 세계 최고령 국가로 꼽히고 이미 200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의 경우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1990년대 말까지 증가하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출산율의 변화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이다.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의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31,045 kWh에서 48,639 kWh로 증가했지만, 그 후 10년 가까이 정체상태를 보이다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 41,650 kWh, 2018년 41,064 kWh로 줄어들게 된다. 출산율은 이와 반대로 감소 후 정체 상태에 머무르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1970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11이었는데,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 1.30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1.38, 2014년 1.40, 2018년 1.37로 증가하는 것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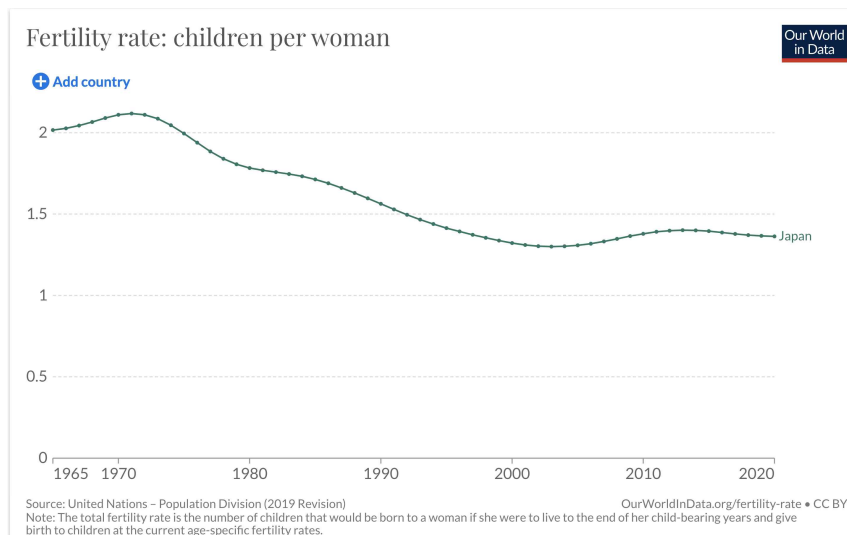


그림 4 일본의 출산율 추이

5)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per-capita-energy-use?tab=chart&country=KOR~TWN>; <https://ourworldindata.org/fertility-rate>

에너지소비와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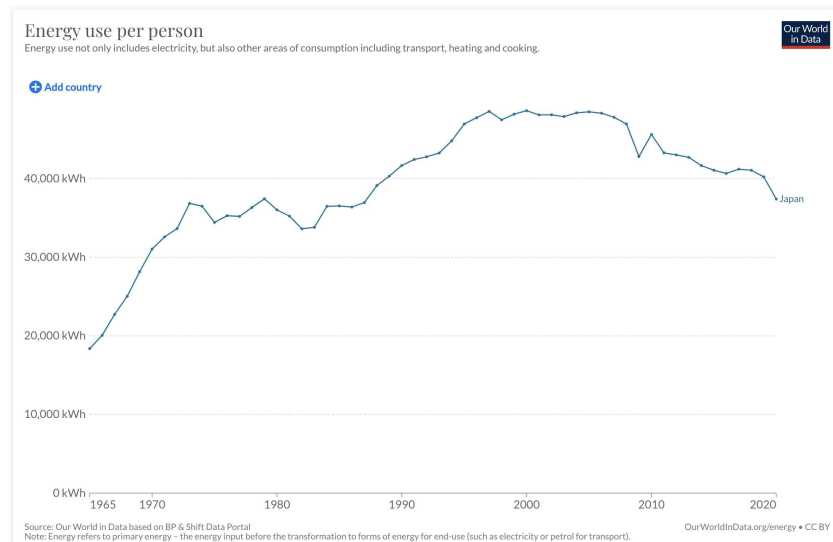


그림 5 일본의 일인당 에너지소비 추이

일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유럽 선진국에서도 발견된다. 스웨덴의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1965년 49,658 kWh를 기록했는데, 그후 20여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6년에 83,600 kWh로 정점에 도달한 후 줄어들어 2000년에는 69,827 kWh, 2010년 63,845 kWh로 감소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60,000kWh 내외를 유지한다. 출산율은 1965년 2.27로 인구유지선 위였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86년에는 1.82로 감소하고 1999년 1.56으로 최저에 도달한다. 그후 200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1.79, 2014년 1.89, 2018년 1.85로 증가한다. 시차가 존재하고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에너지소비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출산율도 반대 방향으로 감소와 증가를 보이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965년 인구유지선을 크게 뛰어넘는 2.79였지만, 1990년대 중반에 1.72로 줄어들었다가 199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 2.0에 도달한 후 2018년까지 1.9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1965년 26,693 kWh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52,299 kWh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47,050 kWh, 2018년 42,239 kWh로 줄어든다. 독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 이후 독일의 에너지소비는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다가 2001년까지 증가한 후 2002년부터 감소 추세로 들어서는데, 이 즈음에 통일의 부정적 영향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경제적, 사회적 안정기로 접어들기 때문일 것이다. 2001년 독일의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49,654 kWh로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2010년에는 47,098 kWh, 2014년 44,896까지 감소한 후 2018년까지 정체 상태를 유지한다.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1.3 수준에서 머물렀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서서히 증가하여 2005년 1.35, 2010년 1.38, 2014년 1.48, 2018년 1.58로 높아진다. 이와 같이 일본,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사회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고, 에너지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에너지소비와 출산율이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6)

6)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per-capita-energy-use?tab=chart&country=KOR~TWN>; <https://ourworldindata.org/fertility-rate>. 유럽 선진국의 합계출산율 증가에 대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기여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적지 않은데, 이 연구에서는 오직 에너지소비와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에만 초점을 맞춘다. 반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Bjorklund 200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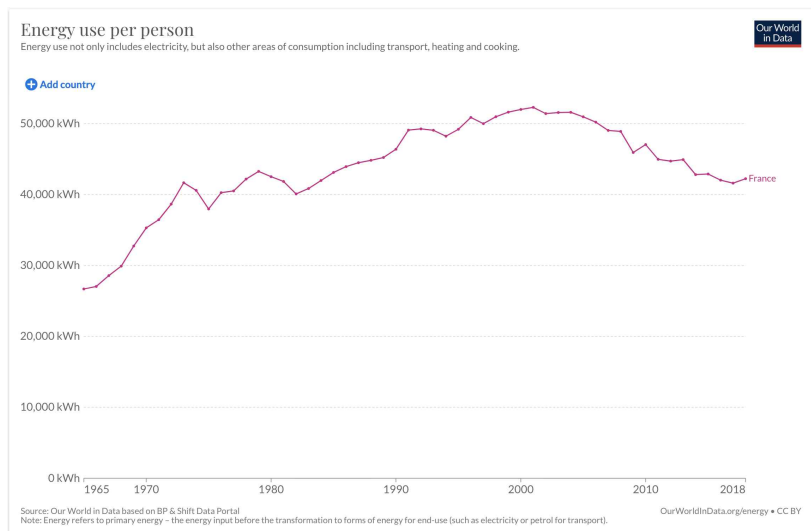


그림 6 프랑스의 일인당 에너지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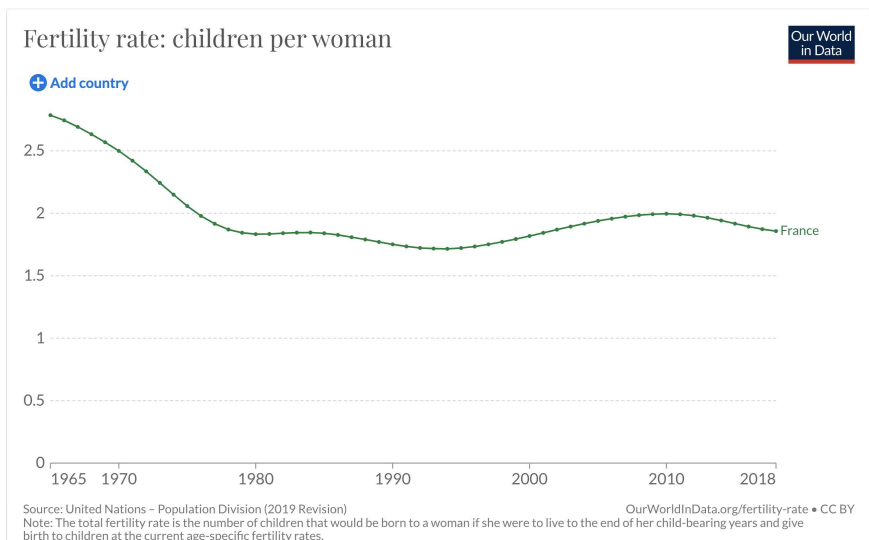


그림 7 프랑스의 출산율 추이

에너지소비와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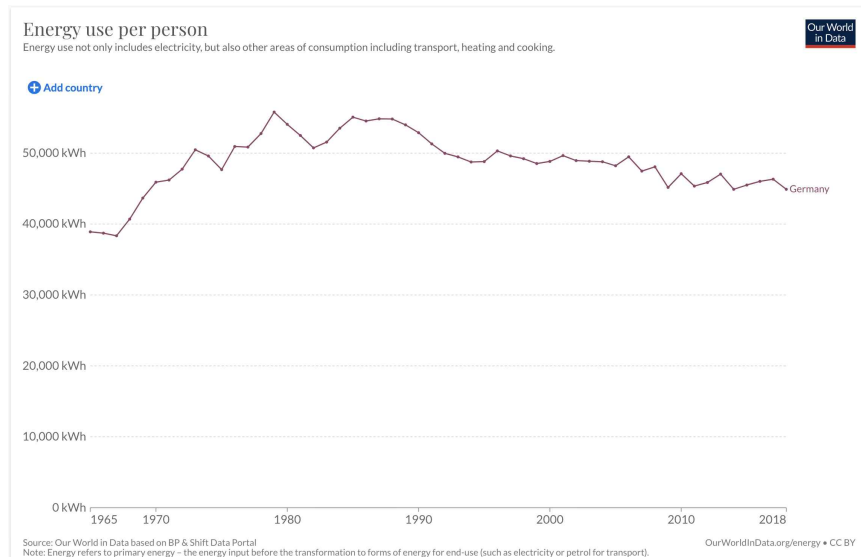


그림 8 독일의 일인당 에너지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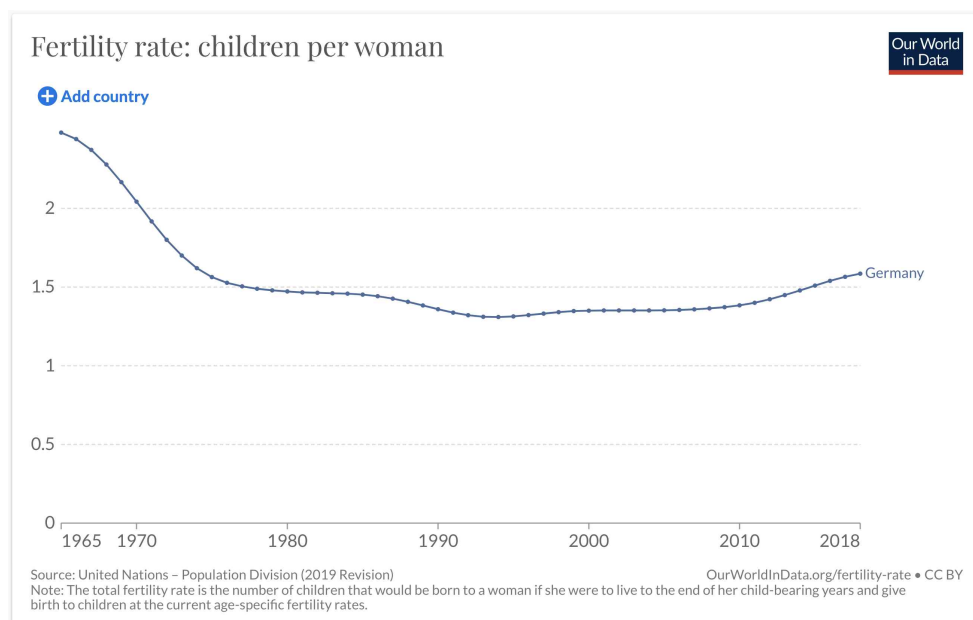


그림 9 독일의 출산율 추이

한국의 경우도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한가지 다른 점은 유럽 선진국이나 일본이 보여주듯 에너지소비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이 감소만 했을 뿐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1971년 한국의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5,195 kWh였는데, 1990년에는 24,746 kWh, 2015년 64,225 kWh, 2018년 67,471 kWh로 증가한다. 이와 반대로 출산율은 1971년 4.19이었던 것이 1990년에 1.58로 감소하고, 2015년에는 1.18, 2018년에는 1.11로 감소한다. 2018년 이후에는 출산율이 더 낮아져서 2020년에는 0.8로 줄어드는데, 코비드 19 유행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그후의 에너지소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2030년경까지의 에너지소비 추세가 나와야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⁸⁾

한국의 출산율이 2021년 이후 어떤 변화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한국과 매우 유사한 에너지소비 수준과 출산율 추이를 보이고 있는 타이완의 사례가 참고할 점을 제공한다. 타이완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1965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 후 2020년까지 정체 또는 약간의 감소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이 2010년 후에도 2018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한 한국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바로 이 다른 지점이 한국의 출산율 추이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는 1970년 7,180 kWh, 1990년 28,499 kWh, 2000년 47,038 kWh, 2010년 57,093 kWh로 증가하는데, 그 후 2014년 57,970 kWh, 2017년 57,273 kWh, 2018년 58,435 kWh로 정체 상태에 들어간다. 합계 출산율은 1970년 3.83으로 상당히 높았지만 1990년 1.74로 감소하고, 2010년에는 1.05로 최저를 기록한다. 그 후 약 10년간의 에너지소비 정체 시기에 미세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1.16에 도달한다. 아래의 두 그래프는 한국과 타이완의 에너지 소비가 매우 유사한 양태를 나타내고, 합계 출산율도 거의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며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에너지 소비가 정체 상태를 유지하거나 감소할 경우 출산율이 미세하게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이나 타이완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일인당 에너지 소비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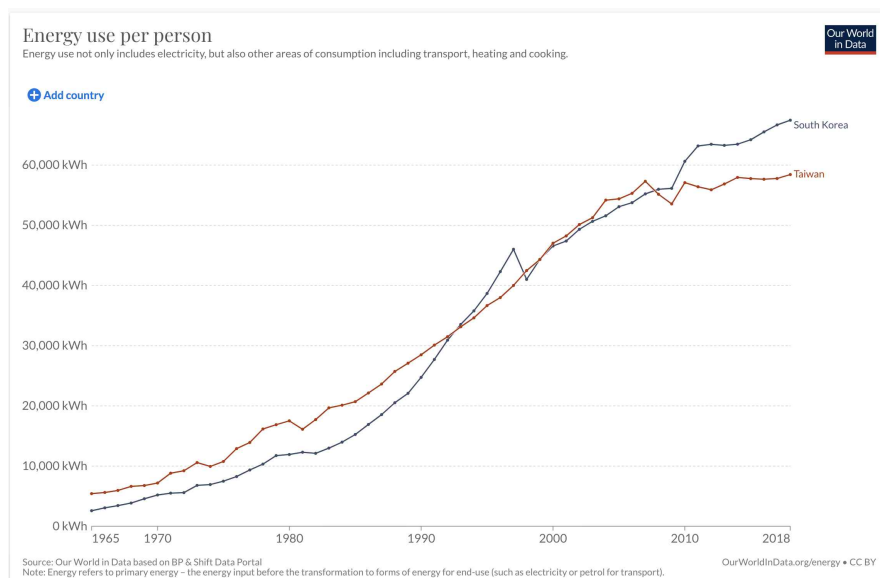


그림 10 한국, 타이완의 일인당 에너지소비 추이

- 7)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per-capita-energy-use?tab=chart&country=KOR~TWN>; <https://ourworldindata.org/fertility-rate>
- 8) 한국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발표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 2021년 0.81이다 (통계청 2022). 그러나 국제 통계사이트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fertility-rate>)에서 UN의 발표를 기초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로 한국 통계청의 발표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 2018, 2019년에도 두 기관의 발표는 차이를 보인다. Our world in data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019년 한국의 출산율은 각각 1.11, 1.09지만,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산율은 각각 0.98, 0.92이다.
- 9)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per-capita-energy-use?tab=chart&country=KOR~TWN>; <https://ourworldindata.org/fertility-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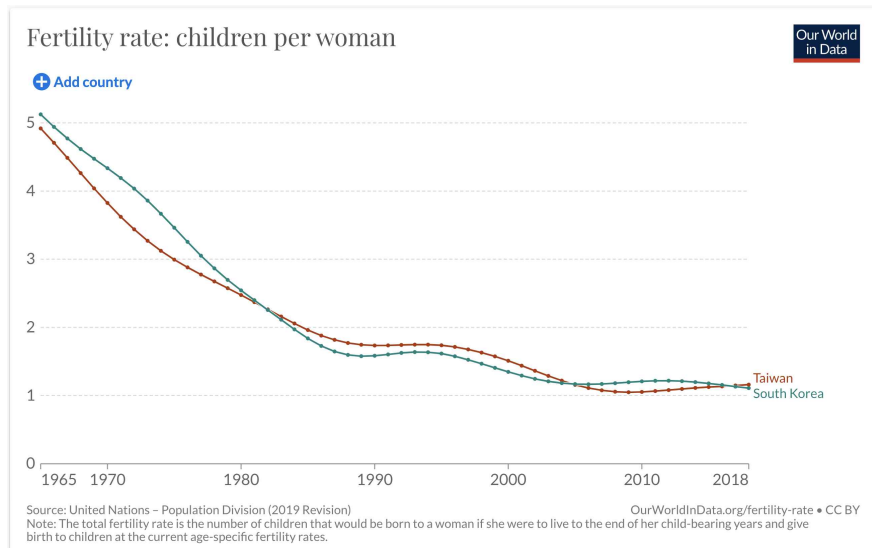


그림 11 한국과 타이완의 출산율 추이

IV. 출산율 감소와 세계 인구

일본에서 볼 수 있듯이 수명 증가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를 상쇄하지 못해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더 많아지면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일본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수의 유럽 선진국에서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몇몇 국가에서는 전체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국외에서 들어오는 이주민으로 인한 것이다.(Eurostat 2018)¹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지만,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예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노력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만일 높은 에너지소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구감소를 막으려 한다면 수명이 늘어난 여성의 가임 기간이 늘어나야 하는데, 에너지소비 면에서 인간에 가까운 코끼리가 50살이 넘어서까지 새끼를 낳는 것에 비해 선진국의 여성들은 40이 넘으면 거의 아이를 갖지 않는다. 만일 여성들이 50세까지도 임신을 하게 된다면 합계출산율이 높아져서 인구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에너지소비 증가와 함께 출산율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세계에서 일인당 에너지를 가장 적게 소비하는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에서 에너지소비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감소하여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인구의 수가 선진국에서 감소하는 인구의 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세계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유엔에서는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장기 인구예측을 내놓고 있다. 2017년에 발표한 예측에서는 2050년경부터 세계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까지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지만,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프리카의 합계출산율도 2000년대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기

10) 한국도 이들 국가와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순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1) 참조

는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감소율이 아주 낮고 이러한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UN 2017)

UN에서 2004년에 내놓은 다른 보고서에서는 2100년경에 세계인구가 112억 정도로 최대에 도달한 후 22세기가 시작할 무렵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300년 경에 중간값으로 90억 정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측한다.(UN 2004) 그러나 아프리카 중남부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안정 상태를 꽤 오랫동안 유지해온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5년의 6,000 kWh 또는 9,000 kWh 정도에서 한국이나 타이완의 1970년대 말 수준인 12,000 kWh 정도로 늘어나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의 2.5 - 3 수준에서 2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2100년의 세계인구도 112억보다 훨씬 적어져서 2015년의 74억보다 더 줄어든 수도 있을 것이다.¹¹⁾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보츠와나와 모로코의 사례는 에너지소비에 상대적으로 크게 낮더라도 사회가 어느정도 안정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출산율은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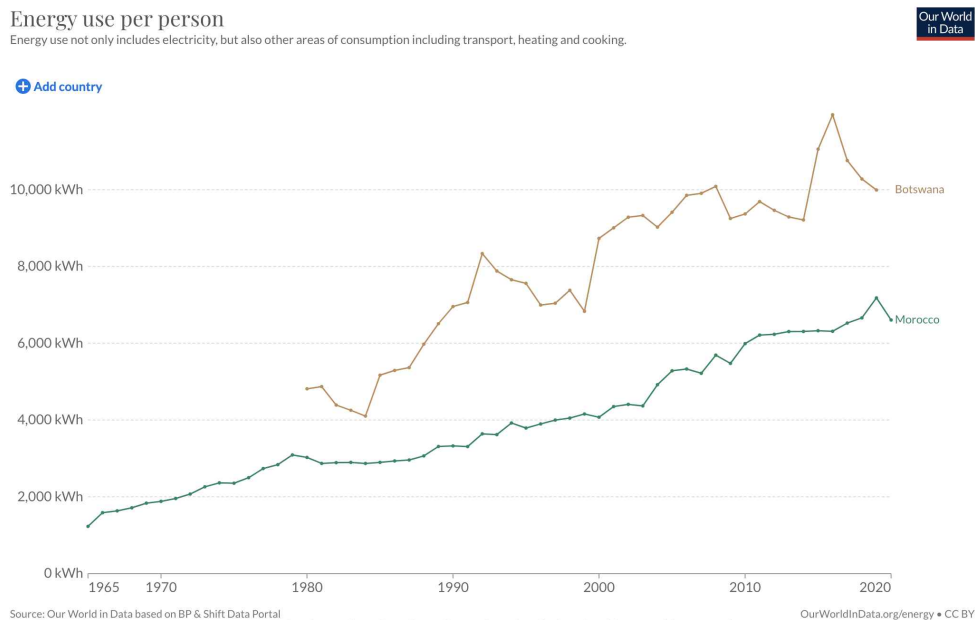


그림 12 보츠와나와 모로코의 일인당 에너지소비 추이

11) 2016년 10억 정도의 아프리카 중남부 인구가 소비한 에너지는 5천만 인구의 한국이 2016년 1년 동안 소비한 에너지의 약 1.7배밖에 안된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일인당 에너지소비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출산율도 상당한 정도로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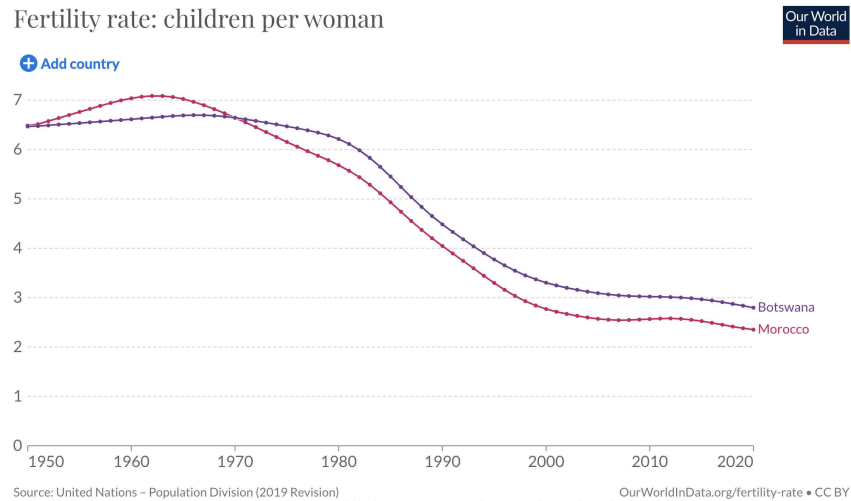


그림 13 보츠와나와 모로코의 출산율 추이

V. 인구, 출산율, 기후변화

인구폭탄의 저자 얼릭의 주장에 따르면 2100년까지 인구가 112억으로 증가하면 지구 생태계, 특히 기후 시스템은 파국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인구증가를 인류 사회의 가장 큰 위기로 보는 얼릭 등은 1968년 인구폭탄을 발표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인구증가가 어떤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며, 기후변화도 인구감소와 재분배, 그리고 이에 따른 과잉소비의 감소가 이루어지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구감소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진다. 인구 1명이 저개발국의 1명보다 10배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선진국에서 인구가 1명 줄어드는 것은 저개발국의 인구 10명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인당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아프리카 중남부의 가나나 콩고 같은 국가에서 인구가 1억 늘어나고 선진국에서는 인구 1천만이 감소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체로가 된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아프리카의 인구증가가 그곳의 삼림파괴 같은 국지적 생태계 파괴를 낳지만, 에너지소비라는 대표적인 지구생태계 훼손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면 전지구적으로는 선진국의 인구증가가 훨씬 더 큰 생태계 파괴를 낳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인구증가는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선진국의 인구가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합계출산율이 인구유지선 2.1 이하인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약간의 결실도 거두고 있다. 예를들어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 말 1.7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펼쳤는데, 2010년대에 들어와서 출산율은 1.9 정도로 올라갔고, 그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가 단지 적극적인 지원정책 덕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일인당 에너지소비도 그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의 증가가 에너지소비의 감소에 따

른 것이라고 볼 이유도 충분한 것이다. 프랑스와 유사한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과 독일도 프랑스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모두 일인당 에너지 소비 감소와 함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문제도 에너지소비의 증가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세계인구가 감소한다는 에너지소비-출산율 상관관계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다. 세계기후회의에서는 유럽 선진국에서 종종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 그리고 중국 등 신흥국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가 이미 풍요로운 생활수준에 도달한 선진국의 책임이라고 반박하며 자기들에게 기후변화 억제에 동참하라는 요구는 그러한 기회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두 진영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소비가 늘어나면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100년 이상의 시간표를 가지고 전망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리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2도라는 한계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얼룩의 견해와 달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와 문명의 파국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인구라는 요소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의 한계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라도 기후변화 해결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한계를 3도나 4도로 설정하면 온실가스를 서서히 줄여도 되므로 아프리카 국가나 인도가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탄 같이 값싼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물론 2도 이하를 고집하면 산업화 초기부터 태양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복잡해진다. 석탄획득 비용이 가장 낮다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당연히 태양에너지보다 석탄을 사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다른 유인책을 마련해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든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 출산율은 낮아질 것이고, 이는 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사용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VI. 맺는말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낮은 출산율과 인구감소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미하지만 성과도 거두고 있다. 종종 유럽 국가 중 프랑스나 스웨덴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적극적인 여성과 가족 관련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겨레 2019; 세계일보 2020).

본 연구의 에너지소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출산율 감소가 정부의 적극적인 여성정책과 예산의 투입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안정적인 사회에서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출산율 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출산율 감소와 관련된 논의에서 이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정점에 도달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감소한 국가에서는 대체로 출산율이 감소하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타이완이 모두 이러한 국가에 속한다. 이 점은 출산율과 인구문제를 논의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에너지소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또한 기후변화 문제의 논의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에너지 소비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하므로 세계인구의 증가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은 아프리카이다. 이 지역에서 산업화가 진행되어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 기후변화를 악화시킨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에너지소비 증가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구감소가 일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의 접근에서도 에너지소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라가르드 2017, 「한국은 집단자살 사회」 중앙일보, 2017, 10. 25
- 세계일보 2020, 「佛·스웨덴, 일·가정 양립 지원… 워킹맘·라떼파파 ‘육아협업’ [연중기획 -인구절벽 뛰어넘자]」, 세계일보 2020. 9.13.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910528623>
- 이필렬 2014, 「출산율 저하와 삶의 질」, 경향신문 2014. 2. 20.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402192056285/amp>
- 통계청 2022, 「보도자료」, 2022. 2. 23
- 한겨레 2016, 「결혼도 버거운데」, 한겨레 2016. 1. 2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8471.html
- 한겨레 2019,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해결 위해 스웨덴을 배우자」, 한겨레 2019. 6.10.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7237.html
- Bjorklund, Anders 2006, *Does Family Policy affects Fertility? Lessons Swede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February 2006
- Burger, Oskar et al. 2011, *Industrial energy use and the human life history* Scientific Reports mpj, 1 (2011) 56
- Carrington, Damian, 2018, *Interview. Paul Ehrlich: 'Collapse of civilisation is a near certainty within decades'*, The Guardian, 22 March 2018
- Emmelin, Lars 1972, *The Stockholm Conference*, Ambio, Vol. 1, No. 4, 1972, pp. 135-140
- Eurostat 2018, *EU population up to nearly 513 million on 1 January 2018*, Eurostat newsrelease, 115/2018
- Fendley, Caitlin 2020, *Eugenics is trending. That's a problem*, The Washington Post Feb. 17. 2020 (<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2020/02/17/eugenics-is-trending-thats-problem/>)
- Max planck Gesellschaft 2012, *What the Electric Meter tells us about the birth rate*, 3 July 2012. (https://www.mpg.de/5880006/energy_consumption_birth-rate)
- Monbiot, George 2015, *There's a population crisis all right. But probably not the one you think*, The Guardian, Thu 19 Nov 2015
- Mulder, Monique Borgerhoff 1998, *The demographic transition: are we any closer to an evolutionary explanation?* TREE vol. 13, no. 7 July 1998
- Okazaki, Yoichi 1963, *An Analysis of the Decline of Birth Rates in Japan*, English Pamphlet Series No. 57,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October 1963
- Pearce, Fred 2014, *It's not overpopulation that causes climate change, it's overconsumption*, The Guardian, Fri 19 Sep 2014
- The Street 2022, *Elon Musk Sounds an Alarm on Italy, Hong Kong, South Korea*, The Street, MAY 25, 2022
- UN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United Nations, 2017
- UN 2004, *World Population to 2300*, United Nations, 2004
- Weyler, Rex 2018, *Does human scale matter?* Greenpeace, 16 March 2018

한국 사회의 차별·배제의 분석 틀로서 내부인종주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검토*

김재형**

Theoretical Review for the Study of Internal Racism as the Framework for
 Analysis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n Korean Society

Jae Hyung Kim

◁ 목차 ▷

I. 서론	V. 한국에서의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 연구
II. 인종주의에 관한 연구	VI. 결론
III. 인종과학 연구	참고문헌
IV. 내부 인종주의	

I. 서론

한국사회의 부랑인, 빈민, 환자, 장애인, 여성, 동성애자 그리고 이주민 등 사회적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센인에 대한 격리 및 단종 문제, 형제복지원 등의 시설에서의 부랑, 빈민에 대한 격리, 그리고 이민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관심과 함께 학계에서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차별과 배제에 관한 연구가 증가함에도 개별 연구로 파편화, 분산화되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포괄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차별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이론의 필요성 역시 점차 대두되고 있다. 낙인이론, 라벨이론, 생명정치, 사회정치, 포스트콜러니얼리즘, 여성주의 등 다양한 사회학 이론과 개념들이 이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차별과 배제의 문제는 특히 인종주의의 사회학(sociology of racism)에서도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다. 인종주의의 사회학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에 관한 기존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인종에 대한 관점, 그리고 식민, 냉전, 민족, 발전, 독재라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배경에 선행하는 또는 이들 배경을 관통하는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설명해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인종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를 설명하는 시도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여러 학자가 한국 사회를 인종주의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이해하고 분석하려 시도했다(전복희, 1995; 장인성, 2000; 윤해동, 2003; 정용화, 2004; 박정심, 2008; 강동국, 2009; 박노자, 2002, 2015). 하지만 인종주의 개념의 복잡성 때문에 인종주의에 대한 개념은 과편화되거나 서로 어긋나게 사용된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 유럽과 미국에서 인종주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중요한 현상으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사회는 인종주의라는 개념에는 익숙한 대신 인종 문제는 거의 없다고 인식되었기에, 민족이나 국가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면 본격적인 연구는 드문 현실이다.

한국 사회학의 중요한 연구대상 중 하나가 근대적인 것과 관련된 사회현상이라고 했을 때, 근대적인 것 자체가 인종주의적이라는 최근의 연구들(Stewart, 1998; Gillborn, 1995; Hesse, 2007; Bobo, 2015)은 우리 사회에 관한 연구에도 인종주의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이들 연구가 공유하고 있는 “인종화된 근대(racialized modernity)”라는 개념은 식민지와 냉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세계화 시대에 타민족/인종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특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근대적인 것은 이미 인종주의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됐다는 주장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도 근대화 과정 중 인종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자장 아래 있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의 부랑인/부랑아 연구 중 일부는 한국 사회 특정 내부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내부-인종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인종주의적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타인종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인종적 위계를 구성하고 차별과 배제의 행위를 반복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이 최근의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종주의라는 개념은 각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그 개념을 사용하는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성은 인종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트린다. 이 글은 인종주의에 대한 개념적 정리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인종주의를 통해서 형성된 인종을 우열로 구분하는 분류체계가, 우생학이라는 새로운 사상과 실천을 통하여 한 사회 내 구성원들 역시 우열로 가르는 분류체계로 변모했음을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배제와 차별을 생산하는 인종주의적 또는 내부인종주의 흐름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결론에서 인종주의, 내부인종주의에 의한 한국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일반이론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II. 인종주의에 관한 연구

1. 인종주의의 정의

가. 이데올로기로서 인종주의

인종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엄밀한 사회학적 개념으로서 인종주의란 “인종적 지배의 이데올로기”이다. 즉 인종주의란 “생물학적 또는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하나 이상의 인종 집단이 다른 인종 집단의 열등한 처우나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하고 규정하는데 사용”되는 이데올로기이다(Clair, Denis, 2015: 857). 미국의 인종주의 사회학(sociology of racism)의 역

사를 정리한 사회학자인 클레어와 데니스(2015)에 의하면 인종주의는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 인종불평등(racial inequality)과 개념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인종차별은 특정 인종(주로 유색인종)에 대한 불평등한 취급과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인 반면 인종불평등은,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특정 인종의 소득, 교육, 건강과 같은 차별의 결과로서의 불평등한 결과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리고 인종주의란 그러한 것들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현대의 인종불평등과 차별의 형태들이 항상 인종주의의 즉각적인 결과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Pager and Shepherd, 2008), 미국사회학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그리고 인종불평등의 세 가지 현상 사이의 관계를 추적해왔다(Clarke, Denis, 2015).

나. 차별로서의 인종주의

그러나 인종주의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인종차별적 행위를 포함하는 더욱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인종주의란 “자신의 인종이 우월하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다른 인종의 사람에 대한 편견, 차별 또는 적대”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인종을 열등하거나 우월하다고 구분 짓기 위하여 한 인종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인종에 독특한 성격, 능력 또는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즉 인간 집단을 우월함과 열등함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는 믿음과 그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인종주의 개념이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러브(Love, 2004)는 미국의 제국주의와 인종주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인종주의를 “인종에 기반한 권력의 배타적인 관계”로 정의하고, “인종적 사회질서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문화적으로 인정된 믿음들, 관행들, 제도들의 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녀에게 인종주의의 주요 목표는 비백인들을 미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주류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었다. “차별”이라는 행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racism”을 “인종차별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한다(고모리, 2015). 즉 인종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인종주의보다는 인종차별이라는 행위를 인종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사고하는 흐름이 있다.

다. 생물학적 환원주의적 인종주의

이러한 관점에서 인종주의(racism)를 인종론(racilaism)과 구분하기도 한다(문종현, 2014: 209-210). 즉 인종주의는 인종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정치적인 배제와 차별을 지시하는 가치와 규범”을 포함하는 반면, 인종론은 인종이라는 집단을 범주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과학적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하고 후자는 차별과 배제의 이데올로기로 오염되기 이전의 상태인 객관적 생물학적 지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인종주의는 지양해야 하지만, 인종이라는 범주는 생물학적 실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종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차별이라는 관념과 행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인종과 인종주의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주장과는 다른 사실들을 보여준다. ‘인종(races)’에 대한 개념은 인류를 구분하는 생물학적 분류기준이 될 수 없고, 피부색, 머리색, 혈통 등으로 인간을 범주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필요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다(마크스, 2017). 인종이라는 범주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인종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졌다는 일반상식과 다르게, 선행연구들은 인종이라는 개념은 타인종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이고 경제적 목적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한편 들라캥과뉴(2013)에 의하면 인종주의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나 외국인 혐오(xenophobia)와 구분된다. 자민족중심주의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다른 모든 집단 가운데 최고라고 믿으며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태도를 일컫는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1952)는 자민족중심주의는 모든 부족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국인 혐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인종, 민족, 문화, 종교를 가진 집단을 혐오하는 태도이다. 외국인 혐오는 인종주의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외국인혐오가 반드시 타인종의 열등함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혐오는 자신의 집단보다 더 우월한 집단에게도 생기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혐오는 이주해 온 타민족의 사람이 국적을 바꾸고 현지의 문화에 동화되었을 때 해소될 수 있지만, 인종주의는 국적이나 문화 등의 요인 등과 무관한 타자의 생물학적 특성과 관련되었기에 해소될 수 없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인종주의는 인종본질주의(racial essentialism)라 할 수 있으며, 생물학적 환원주의(biological reductionism)와 강하게 연결되었다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인종주의라는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다. 인종주의란 인종차별이라는 행위와 인종불평등이라는 결과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흐름이 한편에 존재한다면, 다른 한편에는 인종차별이라는 행위 역시 인종주의의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시키는 흐름도 존재한다. 또한 인종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인 실재로 인정하되, 거기에 부착된 편견, 차별을 인종주의로 간주해야 한다는 흐름과, 반대로 인종의 구분 자체가 인종주의적이라는 최근의 연구 흐름이 존재한다. 후자의 논리에 따르면 인종주의란 인간을 생물학적 특징으로 구분하는 생물학적 환원주의의 일종이다. 생물학적 환원주의라는 관점에서 인종주의란 자민족중심주의와 외국인 혐오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인종주의란 문화의 우열을 가르는 기준으로서 인종보다는, 그러한 문화의 우열을 가르는 기준은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해 있다는 근본가정을 함유하고 있다.

2. 인종의 사회적 구성

인종은 생물학적 특징으로 구분된 인간 집단이며, 인종주의는 생물학적 환원주의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인종과 인종주의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 혼란을 일으키는 개념으로 ‘인종(race)’과 ‘종족(ethnicity)’이라는 개념이 있다. 인종은 생물학적 기반에 근거하며, 고정되어 있다고 인식되는 반면, 종족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혈통이라는 생물학적 개념을 포함함과 동시에 공통의 역사, 문화라는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Cornell and Hartmann, 2006). 아시아인이나 황인종은 인종으로 정의되지만,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은 인종의 하위범주로서 종족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종족(ethnicity)과 국적(nationality)은 자주 겹치는 개념이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계 일본인, 중국계 한국인(화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인종과 종족이 항상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항상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종족이라는 개념에서도 생물학적 혈통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흐름도 존재한다. 유럽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서는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유럽에서 민족의 구분에 있어 역사나 문화와 같은 요인보다 한 집단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생물학적 혈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이 이 개념에 기반해 있다. 그러나 종족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집단에게 있어 생물학적 혈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혈통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스미스, 2018).

이러한 인종의 사회적 구성 과정은 미국의 역사학계와 사회학계의 백인성(Whiteness)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뢰디거(Roediger, 1991)의 남부 백인 남성들의 정체성 형성 연구를 시작으로 미국 역사학과 사회학과에서는 흑인 등의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과 불평등 연구에서 백인(the White)과 백인성(Whiteness) 연구로 이동했다(Kim, 2018). 미국에서 백인이라는 인종 범주는 시민권(citizenship)이라는 경제적, 정치적 권리의 획득은 물론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관련된 것이었다. 즉 인종이라는 인간 집단의 생물학적 분류는 국가 및 사회, 특히 기득권 집단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목적에 의하여 만들어진 분류이기도 하다. 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며, 시민권이 없는 비백인/유색인종들은 무임금, 저임금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흑인들이 노예제도를 통하여 무임금으로 착취당했으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 등의 재산을 수탈당했다. 이후에는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들과 전세계의 이민자들이 비백인으로서 저임금 등으로 착취당했다(Ignatiev, 1995; Jacobson, 1998; Kolchin, 2002; Haney-Lopez, 1996). 지금은 백인으로 인정받는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 슬라브계인, 켈트족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백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1751년 전세계에서 유일한 백인은 색슨족(Saxons)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Kolchin, 2002). 백인(the White)라는 공식적인 인종 범주도 처음에는 ‘자유백인(Free White Person)’이었다가, 1840년부터 1924년까지는 ‘앵글로 색슨(Anglo-Saxons)’ 1924년부터 1965년까지는 ‘코카시언(Caucasian)’이라 불렸다.

미국의 백인성 연구는 인종이 생물학적 특성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인종은 경제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지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본다면 유럽이 자국 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구성되었다면 미국은 비백인/유색인종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인종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인종주의적 착취 시스템은 비백인/유색인종뿐만 아니라 백인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했다. 남부 백인노동자들은 백인으로서의 우월감을 통해서 저임금을 견딜 수 있는 심리적 보상을 획득했다(Roediger, 1991).

3. 인종주의 사회학 이론

미국에서 인종주의의 사회학은 몇 단계의 발전을 거쳤다(Claire, Denis, 2015).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적 사회학 연구는 듀보이스(W.E.B. DuBois)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듀보이스가 활동했던 시기의 사회학자들은 인종주의적 가정, 즉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왜 어떤 인종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욱 뛰어난지, 그리고 뛰어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다(Claire, Denis, 2015). 하지만 최초의 흑인 사회학자였던 듀보이스는 인종주의의 정치경제학 뿌리를 분석했으며, 그것의 영향에 관해 연구했다. 둘째 단계의 인종주의 사회학에서는 인종주의를 편견적 신념과 태도로 정의 내렸다. 예를 들어 백인과 흑인 사이의 소득불평등은 소득이 많은 직업에서 흑인을 배제하는 작업장 차별과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도적 차별과 정책을 제거하거나, 흑인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인종주의를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가 만연했다. 셋째 단계에서 이전에 무시했던 듀보이스의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적이고 구조적 분석이 재등장했으며, 현대 인종주의의 교묘함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했다. 사회학자들이 인종주의를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지위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 근본적으로 뿌리 내린 것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Blumer, 1958). 또한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라는 개념이 점차 중요해졌는데, 인종주의 그 자체로만 분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계급갈등, 젠더와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회학적인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인종주의의

여러 측면이 주목받았다.

가. 제도적 인종주의(institutional racism)

현대의 인종주의에서는 분명한 차별과 배제의 행위가 줄어들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전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과 배제는 점차 비가시화되고 있는 대신, 범죄, 건강, 경제 등의 여러 영역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인종적, 불평등, 차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많은 사회학자는 자신을 인종주의자라고 여기는 개인들이 점차 줄어들어 가는 대신, 이전의 인종주의가 제도들과 조직들에 배태되어 지속되며 개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Bobo et al., 1997; Massey and Denton, 1993; Pager and Shepherd, 2008). 이는 인종주의적 착취와 함께 발전해온 미국 사회의 형성과 같이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즉 인종주의에 비판적인 미국 사회의 가치와 규범이 점차 발전하여 점차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사라졌고, 비백인/유색인종을 착취하고 배제하며 모욕했던 인종주의적인 제도 역시 폐지됐다 하더라도, 인종주의적 요소들은 시스템 곳곳에 모호한 형태로 배태되어 있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요소들이 배태되어 있는 제도들은 은밀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인종차별과 인종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나. 상징적 인종주의(symbolic racism)

인종주의에 비판적인 가치와 규범이 미국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지만, 지속되는 인종불평등을 지지하는 태도는 여전히 강고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회학적 연구 결과는 반복적으로 많은 백인이 원칙적으로 인종차별적 정책에 반대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인종불평등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학자인 킨더 및 시어스(Kinder, Sears, 1981)는 이러한 원칙과 실천 사이의 차이를 ‘상징적 인종주의’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보편적 원칙에서의 신념과 “무책임한” 흑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도덕적 분개가 결합한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인종주의는 라스무센(Rasmussen, 2011)가 언급한 유럽에서 등장한 신인종주의(neo-racism)의 특징과 비슷하다. 라스무스는 유럽에서의 최근의 인종주의는 더 이상 유색인종의 생물학적 열등성을 혐오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그보다 그들 문화의 비문명성과 야만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묘사했다. 이렇게 본다면 상징적 인종주의는 “문화적” 인종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최근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포비아(Isramphobia)”적 현상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 들어온 500명의 난민에 대한 인종주의적 비난은 아프리카인에 대한 생물학적 열등성을 들먹이지 않는다. 대신 자유주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맞지 않는 그들의 비문명적 특징을 부각시켜 그들의 열등성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인종주의를 작동시킨다.

다. 자유방임주의적 인종주의(laissez-faire racism)

자유방임주의적 인종주의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는 사회가 인종적 평등을 점점 더 많이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흑인에 적대적인 스테레오타입과 동시에 여러 사회문제에 대하여 비백인/유색인종을 비난하는 경향을 강조한다(Bobo et al., 1997). 상징적 인종주의와는 다르게 자유방임주의적 인종주의는 인종적 평등 정책에 대한 백인의 반대는 지배적인 집단의 자원과 특권의 소유에 대한 감각이 종속적인 집단에 의하여 위협받을 때 촉발되는, ‘인종집단위협(Blumer, 1958)’에 뿌

리 내려 있다고 이해된다. 즉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반백인/유색인종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또는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은 반대하고, 그러한 정책에 위협을 받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사회가 비백인/유색인종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로디거(Roedgier, 1991)가 보여준 것처럼 그러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비백인/유색인종보다는 우월하다는 심리적 보상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있는 저소득 백인 남성 노동자들에게 비백인/유색인종이 자신의 기득권을 또는 그나마 조금 갖고 있던 상징적 우월감을 앗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최근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적 인종주의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나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같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주는 정책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감은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가능할 것이다.

라. 암시적 편견(implicit bias)

인지 심리학과 문화 사회학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등장한 암시적 편견이라는 개념은 미국 사회의 평균적인 개인들이 유색인종 특히 흑인보다는 백인에 대해서 긍정적 판단을 내리는 현상을 의미한다(Banaji, Greenwald, 2013). 그리고 이러한 인종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스테레오타입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종적 평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신념을 보일지라도 이러한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암시적 편견 현상은 기업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무의식적으로 가진 백인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는 구인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인종주의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인종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미국 사회의 계층화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인종주의가 백인뿐만 아니라 유색인종에게도 내면화되어 각자의 정체성을 구성했으며, 이러한 내면화된 인종주의는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지속시킨다. 또한 제도적 인종주의를 비롯한 여러 개념들은 명백한 차별적 행위의 거부라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소수집단을 위한 어떠한도 불구하고 인종주의가 지속되는 메커니즘을 구명하는데 공헌하였다.

Ⅲ. 인종과학 연구

1. 인종의 분류와 과학

인종(races)은 생물학적 기준에 의하여 인구를 분류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측에서도 인종은 생물학적 실재로 그리고 인종주의는 거기에 부착된 이데올로기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문종현(2014)은 인종주의(racism)와 인종론(racialism)을 구분할 것을 주문했는데, 그 이유는 인종이라는 분류는 그 자체로 생물학적 지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과학적 구성물이며, 인종주의라는 부정적인 이데올로기가 오염되기 전의 실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차별과 배제를 낳는 인종주의는 배척하고 지양해야 하지만, 인종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반면 최근 연구는 인종 분류 자체가 인종주의적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 인종은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서 인구를 분류하는 과학적 외피를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적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들라캉파뉴(2013)는 인종이 실재하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선행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의 원주민들을 수탈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또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이 통치했던 남미 지역에서는 지배계급의 혈통적 순수함을 유지하여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타고난 신체적 특징인 피부색에 근거하여 사회적 분류체계를 만들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에스파냐인과 흑인 노예, 그리고 지역 원주민들의 혼혈을 분류하고 명명하고자 하는 작업을 해왔다. 다양한 피부색의 조합을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이름을 짓는 행위는 근대적인 새로운 행위이다. 게다가 지배자인 에스파냐인을 제외하고는 혼혈인들에게 붙여진 명칭들은 모두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피부색을 중심으로 경멸적인 의미가 덧붙여진 분류체계와 인종주의적 어휘들은 북미와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북미에서 백인들(앵글로 색슨족)은 인디언들과의 혼혈이 거의 없었고, 초기에는 흑인과의 혼혈도 드물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분류법은 나타나지 않았다.¹⁾ 대신에 인디언과 흑인 노예에 대한 갖가지 편견들이 등장하고, 백인의 분류를 중심으로 복잡한 정치가 등장한다.

한편 스테르만(Stuurman, 2000:4)은 17세기 유럽인들이 전 세계에 분포된 인간 집단의 분류체계 만드는 과정에 인종주의적 편견을 주입했음을 보여주었다. 1648년 프랑스의 프랑수아 베르니(François Bernier)는 『지구에 거주하는 인간을 여러 종 혹은 여러 인종으로 나누는 새로운 세계 분할(Nouvelle division de la terre par les différentes espèces ou races qui l'habitent)』이라는 글에서 세계 인구를 유럽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라플란드인(Lapps)으로 분류했는데, 아프리카인은 개에, 아시아인은 돼지, 라플란드인은 ‘불쾌한 동물’로 비유했다(들라캉파뉴, 2013: 194). 인구를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인간과 동물을 비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스웨덴의 박물학자 카를 폰 린네(Carl von Linné)를 통해서 결합되었다. 1748(1735)년에 출판된 『자연체계(Systema Naturae)』에서 그는 인간과 유인원을 모두 ‘안드로포모르파(Anthropomorpha)’로 포함하고, 그 등급의 가장 위에 인간을 두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유럽인, 아메리카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으로 다수 분류했는데, 후자로 갈수록 지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은 유인원에 가까워진다고 주장했다. 린네의 분류는 대륙에 근거해 있었으나, 의복과 법률 제도 같은 특성에도 기반을 두고 있었다. 유럽인은 법의 지배를 받는 리티부스(Ritus), 아시아인은 의견의 지배를 받는 오피니오니부스(Opinionibus), 아메리카인은 관습의 지배를 받는 콘수이투디네(Consuetudine), 아프리카인은 기분의 지배를 받는 아르비트리오(Arbitrio)라고 분류하기도 했다. 즉 그의 인류 분류법에는 문화적인 요인도 다분했다(마크스 2017: 36-38). 18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페트루스 캠퍼(Petrus Camper)는 그러한 생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그는 두개골의 안면각(facial angles)를 측정함으로써 흑인과 유인원이 해부학적으로 비슷하다고 주장했다(Diogo, 2017). 비슷한 시기의 요한-프리드리히 블루멘바흐(Johann Friedrich Blumenbach) 역시 두개골 관찰에 의하여 인류는 크게 코카서스인, 몽골인, 에디오피아인, 아메리카인, 말레이시아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인종주의 과학의 발달 과정 속에서 ‘퇴화(degeneration)’에 대한 감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마크스, 2017). 예를 들어 피에르 루이 모페르튀(Pierre Louis Moreau de Maupertuis)는 혈통과 피부색을 연결해 인종에 대해 사고했다. 그에 따르면 최초 인류의 피부색은 흰색이었으며, 오

1)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 사이의 혼혈은 가능했지만,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 사이의 혼혈은 불가능했다.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 노예 사이의 혼혈아는 출생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노예 신분을 물려받게 되었다.

랜 기간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열대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피부색이 검정색으로 변했다. 흑인 중 하얀색 피부를 갖는 알비노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히 과거의 원래 피부색의 영향이 드러난 것이다. 백인과 흑인은 원래 같은 인종이었다는 생각은 프랑스의 조르주 루이 르클레르크 드 뷔퐁(Georges-Louis Leclerc, Comte de Buffon)으로 이어져 퇴화(degeneration)라는 이론으로 발전되며 대중화된다. 18세기 중후반에 차례로 출판되었던 그의 저서 『박물지(Histoire naturelle)』에 등장한 이러한 생각은 한편으로 인류가 한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단일기원설(monogenism)로 발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색소가 많아지는 피부색으로 바뀔수록 그 인종이 퇴화되었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에 따르면 흑인은 원숭이와 가장 가깝게 퇴화된 인종이다. 퇴화된 열등한 인종이 존재하며, 그러한 인종은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은 과학적 합리성에 의하여 정당화되어 18세기, 19세기 유럽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게 되었다. 후술하겠지만 ‘퇴화’라는 개념은 이후에 내부인종주의, 그리고 우생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과학적 인종주의(scientific racism)의 탄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은 프랑스의 외교관이었던 아르튀르 드 고비노(Joseph Arthur de Gobineau)이다. 고비노가 1853년과 1855년 2권의 책으로 출판한 『인종불평등론(Essai sur l'inégalité des races humaines)』은 인종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책이라 평가 받는다(김웅중, 2004; 신웅철, 2005; 김중현, 2008; 들라캥파뉴, 2013; 문중현, 2014; 마크스, 2017). 이 책 덕분에 고비노는 과학적 인종주의의 아버지로 칭해진다. 인종주의 형성에 있어 그의 공헌은 그의 이전 시대와 동시대의 생물학자, 박물학자들이 생산한 인종을 분류하고 각 인종별 특성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여, 사회적 불평등을 인종적/혈통적 특성으로 설명하려했던 것에 있다. 그는 인종/혈통을 중심으로 문명 발전을 설명하고자 했다.

세계의 여러 문명은 아리아인(Aryan)이라고 이름 붙여진 집단에 의하여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유럽의 귀족들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문명은 이들 집단의 혈통 순수성이 지켜지면 계속 발전하고, 다른 인종/혈통과 섞이면 쇠퇴하는 것이었다. 그가 활동했던 19세기 중반의 유럽은 이미 이러한 귀족들이 사라져 문명이 쇠퇴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문명의 쇠퇴와 관련된 것이며, 열등한 인종/혈통의 자연스러운 특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마크스, 2017: 40-42). 그의 이러한 주장은 “역사를 자연과학 계열에 포함시키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들라캥파뉴, 2013: 208). 인류 문명의 발전은 인종/혈통의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생물학적 환원주의였다. 사회의 발전을 다른 여러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나 인간의 노력이라는 요인이 아닌 혈통으로 설명하는 그의 주장은 얼핏 보기에는 인간의 개입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인간의 개입을 열어 주는 것이었다. 즉 고비노는 태초의 귀족 인종/혈통이 만든 문명의 쇠퇴를 다른 열등한 인종/혈통과의 혼합 즉 혼혈로 돌림으로서, 생물학적 역사발전에 인간의 노력이 개입할 길을 열어주었다. 즉 인종별 피의 섞임을 막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순수한 혈통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고비노의 역사발전에 대한 설명은 당시 마르크스(Karl Marx)의 역사관과는 대척점에 있었다. 그의 주장은 19세기 후반 휴스턴 스투어트 체임벌린(Houston Stewart Chamberlain)에 의하여 독일에 건너가 꽃을 피운다. 특히 1930년대 독일에서의 히틀러 집권과 나치 정서가 확산되자 고비노는 ‘독일 인종 이론의 선구자’로 칭송받았다. 반면, 독일 외부, 즉 프랑스에서는 ‘저주받은 히틀러의 조상’이라는 악명을 얻었다(문중현, 2014: 221).²⁾

2) 문중현(2014)은 고비노의 원래 사상이 그의 추종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왜곡, 확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원래 주장과 이러한 속류 고비노주의를 구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소개하였다. 반면 들라캥파뉴(2013)는 그의 주장은 어떠한 긍정적인 면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 저자는 고비노의 인종론과 그의 추종자들이 만든 인종주의를 구분 하자는 문중현의 주장을 인종론 자체가 이미 인종주의적이라는 최근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판한다.

한편 김선민(Kim, 2018)의 박사논문은 1907년부터 1911년 사이의 미국 이민 위원회였던 딜링엄 위원회(Dillingham Commission)의 인종 분류 작업에 있어 인종과학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음을 보여주었다. 20세기 초 급격히 증가한 미국의 이민자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만들어내었다. 특히 인종의 분류에 있어 이 당시 새롭게 증가한 라틴계와 슬라브계 중심의 남부 및 동부 유럽인들은 기존의 백인 범주의 경계를 흐리게 하였다. 이들은 유럽인이지만 국가와 인종 분류 과학에 근거해 백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미국의 백인사회와 동화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구분하는 작업을 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종 과학은 이들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러브(Love, 2004: 154)는 미국 의회에서 하와이의 병합 과정 중에 벌어진 논쟁을 소개하는데 보건의학지식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당시 미국 의회는 미국의 확장을 주장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동시에 미국의 인종적 우수성을 지키려는 인종주의자들 간의 논쟁이 있었다. 열등한 식민지의 인종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미국 문명의 퇴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종주의자들에 맞서, 제국주의자들은 하와이 인구의 다수는 유럽 이주민으로서 그들은 코케시언의 우수한 생물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되어 포르투갈인이 코케시언인가에 대한 주제로 또 하나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포르투갈인의 피부색이 백인에 비하여 어둡긴 하지만, 이들이 유색인종이 잘 걸리는 한센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보건의학적 지식은 이들이 백인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2. 유색인종의 “열등한” 신체와 인종주의 과학

러브(2004)는 하와이 등의 태평양 섬들에 거주하던 원주민들 사이에 확산되던 각양각색의 전염병들과 이들의 인구 급감의 관계가 인종주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하와이 및 마이크로네시아 원주민들에게 익숙하지 않던 결핵, 천연두, 나병 등 다양한 전염병이 유럽인들의 이주와 함께 퍼졌고, 동시에 이들 유럽인들의 착취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잃은 원주민의 인구는 급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국주의적 착취의 맥락은 사라진 채 원주민 인구 급감의 이유는 이들의 도덕적 결핍과 제례에 의한 유아살해라는 야만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석되고 정당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질병에 면역력과 저항력이 낮은 그들의 열등한 신체 역시 원주민의 멸종화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한편 한센병(leprosy, Hansen's disease)는 전세계적으로 유색인종의 신체적, 보건의 열등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과학적, 의학적 근거였다(정근식, 1997a, 1997b; Edmond, 2006; Moran, 2007; 藤野豊, 1998, 2001).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처럼 유럽인들이 건너가 정착한 지역들에서도 인종적 순수성을 지키고 비문명성을 제거하는데 한센병 통제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가 되는 로벤섬(Robben Island)은 한센병 환자를 격리하는 장소가 되어 환자들은 이곳에 버려졌다. 환자들은 주로 원주민들이었다. 가끔 백인환자도 있었는데 이들을 로벤섬에 격리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한편 남아프리카의 Hott 족의 다양한 특성들을 한센병과 연결짓는 의료지식 역시 형성되었다(Edmond, 2006). 호주의 경우는 주로 광동성에서 건너온 중국인노동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한센병이 문제가 되었다. 원주민들도 한센병에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반면 백인들은 우수한 신체적 특성 때문에 한센병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호주 보건당국은 한센병으로 인한 백인들의 쇠퇴를 막기 위하여 나병선(leper line)을 긋고 그 이하로 중국인 노동자들이 남하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에서도 한센병은 열등한 인종인

흑인이나 하와이 원주민들과 중국인의 특성이라고 인식되었다(Gussow, 1989; Love, 2004; Edmond, 2006.). 흑인의 열등한 신체적 특징은 한센병의 증상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됐다. 흑인의 어두운 피부색, 들창코 등의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선천적 게으름, 행동의 굼뜬, 낮은 지능 등의 행동적 특징 역시 한센병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학지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의학지식의 형성 과정 중에 인종주의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유색인종에게 혼하고 백인에게 덜 혼한 전염병의 경우 백인사회의 대응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준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한센병에 걸린 한센병 환자를 격리했고,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는 무인도에 추방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아사했다.

한편 리처드(Richards, 1997)는 19세기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심리학이라는 학문분과에서 인종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인종주의가 이 분과에 어떻게 배태되어 인종주의적 지식을 생산했는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과학적 인종주의(scientific racism)는 심리학을 통해 기존에 존재했던 인종적 편견을 과학적 지식으로 탈바꿈시켰다. 예를 들어 유럽인들이 유색인종에게 갖고 있던 편견이었던 열등한 지적능력은 IQ라는 과학적 측정 기준으로 정당화되었다.

식민지에서의 착취를 정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종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과학의 세기에 들어와 과학적 인종주의로서 재탄생하게 된다. 문명이나 문화와 같은 추상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실체하고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다양한 생물학적 특징들로 인종이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인종분류는 실제로는 당시 유럽인들의 타 대륙 인구 집단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것이었고, 동시에 식민지에서의 착취와 수탈을 정당화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즉 생물학적 지식에 근거한 인종이라는 분류는 이미 인종주의적인 것이었다. 한편 식민지 수탈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피식민지인들의 다양한 인구학적 지표들, 예를 들어 유아사망률이나 전염병 유병율, 전체 인구증감과 같은 정보들은 인종주의적으로 해석되었다. 즉 피식민지인의 높은 유아사망율과, 높은 전염병 유병율, 그리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착취의 결과가 아니라, 피식민지인의 열등한 신체와 그들의 비위생적인 문화의 결과로 이해되었고, 그러한 이해는 과학적 지식으로 탈바꿈되었다.

IV. 내부 인종주의

제국주의 중심과 식민지 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했던 기존의 식민주의 연구는 최근 식민지 경험이 유럽의 근대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해 제국과 식민지의 보다 역동적인 관계를 포착하고 있다. ‘인종화된 근대’라는 시각을 받아들인다면, 유럽의 근대 인종주의 역시 식민지의 경험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근대적 인종 개념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남미에서의 스페인의 식민 경험, 그리고 북미,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에서의 유럽 정착민의 식민경험이 매우 중요했다. 한편 애쉬포드와 스트레인지(Ashford, Strange, 2005)는 식민지에서 발전한 몸에 대한 인종주의적 시각과 지식뿐만 아니라 열등한 인종을 다루는 통치의 기술이 19세기에 유럽에 수입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스톨러(Stoler, 1995) 역시 오스만제국에서 먼저 시험되었던 판옵티콘이 영국에 도입되었고, 모로코, 베트남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도시계획이 프랑스로 도입된 사례, 그리고 17, 18세기에 식민지에 광범위하게 퍼진 성욕 정치가 이후 유럽에 도입된 사례 등을 통하여 식민지의 경험이 유럽의 신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었다.

식민지에서 백인과 유색인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던 식민지인 신체와 정신의 열등함은 유럽

의 백인 과학자들에 의하여 과학화(scientification)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의 과학자들은 백인과 유색인종의 신체를 조사하고 측정하여, 그 차이를 수치화하고 객관화시켰다. 이러한 구분 속에서 백인 신체의 우수성이 정의되고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백인의 신체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과도한 노동과 영양부족에 고통받던 농민이나 노동자의 몸이 아니었다. 유색인종과의 차이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백인의 신체가 선택되었다. 스톨러(Stoler, 1995)는 식민지에서의 인종주의적인 경험이 유럽적인 것, 백인적인 것을 구성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자신이 아닌 것들을 구성하고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정치가 행해진 것이다. 특히 스톨러는 유색인종의 특징을 열등함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특징을 배제함으로써 구성한 백인적인 것은 실제로 유럽 백인들의 평균적인 특성이 아니라, 부르주아 남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영양 상태가 좋아 신체의 발육 상태가 좋은 부르주아 백인 남성의 신체가 백인의 표준이 되자 백인 사회는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영국 사회는 19세기 백인의 표준적인 몸의 기준에 미달하는 백인들을 발견하게 된다.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도시의 급격한 인구의 증가, 그리고 도시 생활의 열악함은 도시 노동자가 다양한 건강문제에 봉착하도록 만든다. 엥겔스는 1845년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이라는 책에서 19세기 중반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영국 노동자의 열악한 건강문제에 대해 기록했다. 여기에 보어전쟁의 결과 영국이 패배하자 군대 내의 병사들의 신체에 대한 국가적 우려가 증가했다(염운옥, 2009). 영국인 신체에 대한 다양한 측정 결과들은 영국인, 그리고 영국 사회가 퇴화(degeneration)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우수한 영국인의 신체가 열등한 유색인종과 같이 퇴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인종주의적 과학의 사고방식과 상당히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염운옥, 2009; Turda, 2010; 들라캥과뉴, 2013; 마르크스, 2017). 우수한 인종도 열악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면 열등해진다는 사고방식은, 그러한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켰다. 열등한 유색인종들만이 걸리는 것으로 여겨졌던 한센병에 유럽인들도 걸릴 수 있다는 소식이 영국인의 신체가 위협에 빠져있다는 공포심을 더욱 강화한 것도 퇴화의 감각과 연결된다(Endmond, 2006). 한센병뿐만 아니라 결핵, 매독 등 만성전염병들도 창궐했는데, 이렇듯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백인종의 신체와 문명의 퇴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던 시기이다(피쇼, 2009).

1. 내부인종주의 이론: 푸코(Michael Foucault)의 생명정치/통치성 논의를 중심으로

19세기부터 시작된 백인 사회의 열등한 신체에 대한 과잉 담론의 형성과 그러한 몸체에 대한 다양한 통치기술의 발전이라는 현상을 푸코(Foucault)는 ‘내부인종주의(internal racism)’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포착하고 설명했다(Rasmussen, 2011). 먼저 내부인종주의는 내부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와 구분해야 한다. 내부식민주의는 한 민족국가(nation state) 내부에서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을 식민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조적 불평등과 불균등한 개발, 그리고 소수집단에 대한 착취가 이전의 제국과 식민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가 끝난 시대에는 한 국가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Howe, 2002). 예를 들어서 알제리 내부의 중앙부는 종교적으로 가톨릭을 믿으며, 언어적으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신체적으로는 밝은 피부를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부유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반면 주변부는 무슬림이며, 아랍어나 베르베르어를 사용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식민지적 경험을 갖고 있으며, 여전히 식민모국인 프랑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알제리의 경우 내부식민주의는 인종

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부인종주의는 한 국민국가 또는 한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종주의적 특징을 보여준다.

푸코는 내부인종주의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유럽 사회에서의 생명정치/생명권력(biopolitics/biopower)과 통치성(governmentality)의 등장과 작동방식을 설명했다(Rasmussen, 2011). 푸코의 인종주의 개념은 타인종에 대한 타자화와, 이를 통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과는 다른 결을 갖고 있다. 푸코가 언급한 인종주의를 개념적으로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발리바르(Balibar)와 월러스틴(Wallerstein)의 인종과 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월러스틴은 세계체제론에서 세계 경제가 중심부와 주변부, 주변부로 구분 가능하고, 중심부가 주변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질서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세계체제론에서 인종주의는 중요한 개념인데, 세계 수준의 착취 관계는 인종주의에 의해 정당화되고 유지되며 재생산되었기 때문이다(Balibar & Wallerstein, 1991). 또한 유럽에서의 민족국가는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을 통해 자신의 내부에 있는 계급 적대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공해야만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 적대를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야 하는데 그것이 민족이라는 개념이었고, 시민권을 매개로 민족국가 경계선 안에서만 사회보장정책이 작동하고, 그 외부는 철저하게 무시와 배제가 이뤄졌다. 근대의 구성물로서 민족은 다양한 요소들의 복잡한 사회적 구성물이지만, 그중에서도 인종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집단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즉 유럽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생물학적 혈통을 공유하는 동일한 인종적 집단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것이다(Balibar & Wallerstein, 1991; 최원, 2006; 스미스 2018). 이로써 인종주의는 타인종을 착취하고 배제하는데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한 사회가 형성되고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론화된다. 즉 유럽에서 인종주의란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중요한 경계선이며, 유럽 사회의 질서는 인종주의를 제외하고는 설명되지 않는다.³⁾

그러나 푸코가 언급한 인종주의는 앞서 설명했던 백인을 정점으로 하는 전세계적인 인종의 위계질서나 한 국가/사회의 내외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의 인종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푸코의 생명정치(bio-politics)와 생명권력(bio-power)에 대한 설명은 유럽의 민족국가 내부의 인구의 질 관리와 관련되어 있다. 푸코에게 있어 생명권력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 내부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푸코가 묘사하는 인종주의가 개입하여 주권권력이 다시 등장하는 순간이 묘사하는 것은 우생학(eugenics)에 더욱 가깝다. 라스무센(Rasmussen, 2011)은 푸코의 내부인종주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논문에서 설명했는데 이를 살펴보는 것이 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것

3) nation, race, ethnicity라는 개념은 종종 구분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미국에서 race는 피부색이나 머리색 등의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구분가능한 인구 집단을 의미하고, ethnicity는 인종이라는 인구 집단의 하위 범주로서 같은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백인이라는 인종이 있다면, 그 하위 범주로서 이탈리아 ethnicity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다양한 인구 집단들은 미국인으로서 민족주의(nationalism)를 갖는다. 유럽에서 nation, race, ethnicity 개념도 이와 비슷하게 사용된다. race라는 단어는 17세기 경에는 영국인 English race이나 프랑스인 French race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인종은 각 대륙별로 피부색과 문명이 다른 인구 집단들을 의미했다. 한편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백인종(White race) 보다는 유럽인종(European race)이라고 자신을 칭했으며, 역시 하위 범주로 ethnicity로 서로를 구분했다. 그러나 다양한 ethnicity로 구성되는 미국식 민족주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럽의 경우는 하나의 ethnicity를 중심으로 민족주의가 구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민족주의는 최근에 ethnic nationalism(인종적/종족적 민족주의), ethnic nation(인종적/종족적 민족)이라고 칭한다. 즉 영국은 앵글로 색슨족 중심의 민족, 프랑스는 골족, 독일은 아리안/게르만 중심의 민족주의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구분되는 인종과 비슷하게 종족이라는 개념 역시 생물학적 혈통에 의하여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황에 따라 ethnicity는 인종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며, race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생물학적 혈통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민족주의를 논할 때 사용되는 인종주의(racism)는 종족주의라고 번역될 수 있다.

이다. 푸코는 『비정상성the abnormal』이라는 책에서 정신의학이 내부인종주의의 모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정신의학은 치료적 기능을 갖는 것을 중단하고 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비정상적인 것과의 접촉에서 사회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신의학이 내부인종주의의 특정한 형태의 모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Foucault, 1999: 298-9; Rasmussen, 2011에서 재인용).⁴⁾ 푸코의 내부인종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종주의를 ‘hetero-referential’과 ‘auto(self)-referential’로 구분하는 것은 유용하다. 전자가 외국인혐오나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의 형태로 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의 형태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전자가 일반적으로 타자의 가치를 무시하고 지배의 논리를 행사한다면, 후자는 자신의 우월한 가치를 확고히 하고 배제의 논리를 행사한다. 푸코는 내부인종주의가 인종주의의 ‘auto(self)-referential’의 형태로 비정상적인 것을 고립시키고 배재함으로써 인구의 재생산과 발전이라는 요소들과 결합하는 것이라고 묘사했다(Rasmussen, 2011: 38).

이러한 내부인종주의를 푸코는 세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18세기, 푸코가 ‘인종전쟁(racial war)’이라고 묘사했던 인종담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담론은 국가 내부의 종족분쟁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내부의 프랑크족과 골족 사이의 분쟁은 프랑크족의 후예인 귀족과 골족의 후예인 제3신분 사이의 현대적 갈등으로 역사적 배경으로 이해된다. 즉 이러한 해석은 인종주의 이전의 인종에 대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44)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데, 그녀는 이러한 종족 사이의 갈등, 타종족에 대한 정의가 고비노를 통해서 종족간 서열이 공고히 하는 생각들로 발전했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단계는 19세기말 생물학적 인종의 탄생, 식민주의적 인종주의, 그리고 종족적 민족주의의 세 가지 형태로 등장했다. 이 세 현상 모두 푸코에 의하면 국가 또는 사회의 내외부를 가르는 갈등을 상징한 것으로, 내부인종주의의 개념의 발전된 형태이다. 세 번째 단계는 나치와 스탈린주의에서 등장한 죽음의 정치인 주권권력과 전쟁개념을 결합시킨 국가인종주의이다(Rasmussen, 2011: 39-40).

푸코는 모든 내부인종주의가 나치의 국가인종주의로 나아간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점에서 아렌트가 인종주의를 나치즘에 초점을 맞춰 설명한 것과 차이가 있는데, 푸코는 서구의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유연한 통치적 기술로서 인종주의의 유동성을 강조했다. 푸코에게 주요 초점은 정치적 개입의 대상으로서 ‘인구’의 출현인데, 그 인구는 생물학적/종족적 인구로 권력은 이 인구를 통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이러한 인구의 관리 기술로서 내부인종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생명과 가치 없는 생명 사이의 단절이다. 가치 없는 생명은 종족적 사회에 위협이 되는 것이며, 위협을 막기 위하여 이들 비정상성에 대한 다양한 통치 기술들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푸코의 내부인종주의는 우생학(eugenics)과 비슷하다. 내부인종주의를 ‘auto-referential’, 즉 극도의 자민족중심주의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사회에는 민족의 이상적인 신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상적인 신체를 정점으로 한 위계질서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내부인종주의는 두 가지 형태의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전적인(genetic)’ 인종주의와, 다른 하나는 ‘이상적(utopian)’ 인종주의이다. 전자는 종족의 기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러한 종족의 퇴화를 막기 위하여 다른 인종 간의 출산(miscegenation)의 금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인종주의는 열등한 집단에 대한 대규모 격리, 결혼금지, 단종, 안락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인구의 퇴화를 막고 순수성을 보호하는 네가티브 우생학(negative eugenics)과 유사성을 보인다.

4) 여기서 푸코가 말하는 사회는 같은 혈통을 공유하는 종족/인종으로서 사회이며, 내부인종주의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종족적 사회(ethnic society)’의 오염이다. 이 오염의 결과는 종족/인종의 퇴화(degeneration)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반면 이상적 인종주의는 종족의 이상향이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개입을 통해서 미래에는 그러한 이상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권력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표는 생명공학기술들을 사용하여 이상적 신체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종족적) 인구를 생산하려는 포지티브 우생학(positive eugenics)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다음은 우생학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내부인종주의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우생학 연구

우생학(Eugenics)은 1883년 영국의 프랜시스 골턴(Francis Galton)에 의하여 만들어진 말로 “좋은 혈통”, “고귀한 자질을 타고 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eugenes”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그는 1883년의 논문에서 우생학은 “혈통을 개량하는 과학”을 의미하며, “현명한 교배(결혼)의 문제에 결코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의해 가치 있는 인종이나 혈통이 열등한 인종이나 혈통보다 더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법을 개발하는 학문이라고 정의 내렸다(Galton, 1883). 당시 영국의 인류학계나 사회학계는 이러한 골턴의 사상에 호감을 가졌다. 골턴은 1901년 영국의 인류학회에 초대받아 『기존의 법과 감정 아래에서 인종 개량(race improvement)의 가능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1904년에는 제1회 런던사회학회에서 우생학이라는 신생 학문이 사회의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했다. 당시 신생 학문분과였던 사회학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발전에 인종의 개량이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호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학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간주했다(Meller, 1989; 皆吉, 2005). 1904년 런던사회학회가 설립될 당시 우생학은, 사회복지학 계열, 도시학 계열에 비교해서는 소수였지만,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받아 참여했으며, 초기 사회학이 과학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생학을 받아들여야할 현실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 사회학은 우생학에 호의적이었으나 점차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인종의 개량보다 환경의 개선 등이 더욱 중요하다는 흐름이 더욱 강해졌다(皆吉, 2005).

선행연구들은 우생학이 독일의 나치 정권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그리고 북유럽 국가 등 유럽 각국과 각 식민지에서 큰 힘을 발휘했음을 밝혀냈다(피쇼, 1995).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뉘른베르크 재판의 결과 나치 독일의 우생학이 학살의 원인이었음이 명백해지자, 우생학이라는 이름은 곧 사라졌다. 미국은 장애인과 환자들 그리고 범죄자에게 법률로서 불임 수술을 명시한 최초의 국가였다. 1907년 인디애나주를 시작으로 1950년에 이르면 33개 주에서 불임법 즉 단종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의 단종법은 유럽 각국 및 전세계에 영향을 주는데 1928년에는 스위스와 캐나다, 1934년에는 노르웨이와 독일, 1935년에는 핀란드와 스웨덴, 1937년에는 에스토니아, 1941년에는 중앙아메리카의 여러 국가, 그리고 1948년에는 일본에서 우생법이 만들어졌다. 미국에서는 1907년부터 1948년까지 매달 100여 명씩, 전국적으로 50,193명이 단종수술인 불임수술의 희생자가 되었다. 덴마크에서는 1929년에서 1945년 사이에 3,608명이,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1935년에서 1945년 사이에 15,486명의 사람이 불임 수술을 받았다(피쇼, 1995: 53-54). 독일은 미국의 인종차별법과 우생법을 참고해서 1935년 뉘른베르크법을 제정하고, 우생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열성인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단종수술을 실시했다(위트먼, 2018). 이러한 우생법은 인종을 개량하겠다는 거대 사회개선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세균설의 영향 아래 전염병 질환의 통제가 공중위생 정책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인종개량법인 우생법이 공중위생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피쇼, 2009: 53). 즉 세균에 의한 전염병을 막는 공중위생정책과 함께

유전적 결함과 질병의 확산을 막는 정책이 동시에 실행된 것이다. 이러한 우생법안은 한편으로는 출산율의 조절 정책, 즉 인구수가 증가할 때는 피임과 낙태를 확대하고, 인구수가 감소할 때는 피임과 낙태를 금지하는 정책을 사용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열등한 인자를 갖고 있는 집단에게는 인구의 질의 관리를 위하여 결혼금지, 단종수술, 그리고 양육권의 박탈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후자의 정책은 사회구호정책의 일부에 포함되어 그 힘을 이어갔다(피쇼, 2009).

이러한 우생법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부적격한’ 사람들의 범주는 우생학자인 해리 레플린(Harry H. Laughlin)에 의하여 1922년에 마련됐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없고, 정상인과 달리 국가의 사회기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부적격한 자들이다. 1) 정신박약자, 2) 정신병자(이상성격자 포함), 3) 범죄자(경범죄자와 타락자 포함), 4) 간질병자, 5) 술주정뱅이(습관성 마약복용자 포함), 6) 그 밖의 만성질환자, 전염병자나 약간이라도 전염 기미를 보이는 자, 7) 시각장애자(시력이 매우 약한 자 포함), 8) 청각장애자(청력이 매우 약한 자 포함), 9) 기형아(불구자 포함), 10) 사회적 짐이 되는 사람들(고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 거처가 없는 자, 부랑자, 그리고 극빈자 포함)” 한편 사회정책으로서 우생학은 단종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격리(segregation)라는 방법도 사용했다. 수전 캠벨 바톨레티의 『장티푸스 메리』라는 저서는 장티푸스균 보균자였던 메리라는 여성이 수십 년간 죽을 때까지 격리당했음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한센병 환자들 역시 죽을 때까지 시설에서 강제수용 당하기도 했다. 강제수용은 전염병 환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 부랑인들도 포함됐고, 강제격리와 단종수술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면서 열등인자를 보유한 것으로 낙인찍힌 집단들의 인구수를 감소시켰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에서 격리하고 단종시키며 심지어 나치의 경우와 같이 안락사하는 우생학은 인종주의와는 상당히 다르다. 인종주의는 유색인종을 열등하다고 간주하지만, 노동력 등을 착취할 수 있는 한 단종시키거나 시설에 격리하고 심지어 죽이지는 않는다. 유색인종은 열등하지만 착취할 수 있으며, 이는 백인 부르주아 사회의 자본축적과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 반대로 그러한 자본축적과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유색인종은 제거가능하다. 반면 우생학적 관점에서 열성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착취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사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격리, 단종수술, 또는 살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다. 나치는 독일 시민인 정신질환자, 백치, 장애인을 1939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살해했다.⁵⁾ 이후에 여기에 동성애자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에 대한 학살은 비밀리에 실행되었던 유대인에 대한 학살과 달리 안락사라는 이름 아래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유대인의 학살은 전세계의 비난을 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학살은 칭송되었고 심지어 독일의 모델을 본받자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영국은 다른 국가들의 우생 정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영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단종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대신에 결혼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들에 우생학적 요소가 개입했다. 염운옥(2009)은 영국의 우생학이 사회 하층 계급의 재생산 관리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영국은 출산율의 감소, 영제국의 쇠퇴, 국민의 건강 악화 및 체력 저하 등 영국의 퇴화에 대한 공포가 사회를 감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우생학은 단종수술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결혼과 양육, 이혼, 피임법 등과 같은 인구 정책에 녹아드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즉 영국의 우생학은 인구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 등의 차별과 무관해 보이는 영역에서 힘을 발휘했다. 영국 우생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의 사회적 지

5) 현재 안락사 문제에 있어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에서 안락사 반대입장을 취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의 인공적인 죽음에 대한 윤리적 문제 때문만 아니라 나치의 안락사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위의 획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구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이라는 오래됐지만 새로운 정체성이 출현했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전통적이고 생물학적인 몸이 민족국가(nation-state)와 민족사회의 변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수단이 된 것이다. 모성이 강조되는 여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이 시기 만들어지게 된다.

한편 일본의 우생학에 대한 연구는 후지노(藤野豊, 1998)가 정리했다. 후지노는 파시즘 하에서의 우생학이라는 주제로 일본에서의 우생학과 관련된 역사를 나치의 그것과 비교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려 했던 일본의 우생학 연구를 검토했다. 나치와 일본의 우생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경우 대규모 학살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규모 학살의 부재는 일본이 미국과 독일의 우생학을 참고하여 우생학을 발전시켜나갔지만, 아직 유전병 대책에 주력하지 못하고 영양불량과 감염증에 대한 대책에도 버거워했기 때문이다(米本昌平, 2000). 둘째, 나치의 우생학은 우수한 아리아인과 열등한 타인종이라는 인종주의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지만, 일본의 우생학은 일본인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중심의 인종주의 과학에 기반해서는 그 우수성을 증명하기 힘들었다. 때문에 특정 민족과 인종을 적대시하고 배제한다는 인종주의는 강하지 않았다(小熊英二, 1995). 셋째, 일본에서의 우생학은 천황제 이데올로기 하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한다. 나치의 우생학이 보건정책과 결합하여 건강하지 않은 구성원들을 배제했던 것에 비해 일본의 우생학은 인구정책에 포함되어 힘을 발휘했다.

그러나 후지노의 연구는 파시즘 하에서의 우생학에 초점을 맞추어 종전 후 자유주의 국가인 일본 사회에 지속되었던 우생학에 대한 논의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종전 후 일본에서는 전쟁전의 “국민우생법”이 폐지되고 “우생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총동원시기 전쟁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필요성 때문에 “국민우생법”에서는 열등인자에 대한 단종수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종전 후 일본의 베이비 붐과 영토축소, 재외일본인의 귀국 등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우생보호법”에는 이들에 대한 단종수술이 법에 명시되게 되었다. 이 법으로 인하여 한센병 환자 등의 각종 만성 전염병환자,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들에게 단종수술이 이루어졌다. 즉 일본에서의 우생학은 인구정책 등의 사회복지정책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우생학은 일반적으로 나치정권 하에서의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파시즘 치하에서 실행된다고 생각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존재하고 때로는 더욱 광범위하게 행해진다. 미국의 경우는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한 단종이나 격리를 통해서, 그리고 영국은 여성의 몸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열등한 집단을 배제하고 추방함과 동시에 우수한 집단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우생학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도 우생학은 모자보건법의 주요한 근거가 되어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최규진, 2018). 전세계적으로 인구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적 근거를 제시했던 우생학은 1970년대 거세진 비판에 의해서 그 이름을 유전학으로 바꾸었다. 유전학이라는 이름 속에 지속되고 있는 우생학은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광연, 2014).

3.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의 비교

푸코가 설명하는 내부인종주의는 기존의 인종주의의 개념의 하위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와 대등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간주해야 한다. 인종주의를 둘러싼 이러한 개념적 혼란함을 줄이고, 관련된 현상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개

념의 구분을 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이라는 개념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인간 개인이나 집단을 설명하는데 생물학적 요인을 가장 우선하는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다. 백인, 흑인, 황인 등의 인구집단은 그 집단의 고유한 생물학적 특징이 있으며, 그 특징이 각 집단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생물학적 환원주의는 인종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와 비슷하게 우생학 역시 인간을 정의내리는데 있어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기반해 있다.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은 자신의 사회를 번영시키는데 있어 우수한 (종족적) 인구를 늘이고 열등한 인구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고 운영한다. 여기서 우수한 집단과 열등한 집단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인간의 생물학적 요인으로, 사람들이 생득적으로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유전인자이다. 물론 우생학은 인간이 양육되는 조건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우수한 유전인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인종주의와 우생학 모두 다른 여타의 요인들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구집단을 분류할 수 있으며, 생물학적으로 우수하거나 열등한 인구집단이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근대에 있어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이 두 개념은 모두 과학이나 과학주의에 의해 지지받고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근대의 지식 중 최첨단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몸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지식이다. 과학의 발전과 과학주의에 대한 신봉은 인간 역시 그러한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가능하다는 인식을 보편화시켰고, 힘을 부여했다.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구성되어갔던 인간에 대한 과학지식은 인간을 분류하고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과학지식과 과학주의는 과학적-인종주의와 우생학과 같은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유사-과학들을 만들어 갔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과학적 지식과 사상들은 한 사회의 내외부를 가르고, 한 사회 내부에서 우수한 집단과 열등한 집단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 타자화된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 소멸을 정당화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 두 개념이 타자화된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자기부정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인종주의적 타자인 유색인종은 백인종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며, 백인종이 될 수 없음에 끊임없이 좌절한다. 반면 내부인종주의/우생학적 타자인 다양한 소수자 집단은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음에 분노하고 좌절한다. 그리고 그러한 불공평한 사회질서를 내면화하고 체념화하며, 그러한 체제의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린다(Goffman, 1961; 파농, 2013).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은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기반해 있으며 과학적 지식과 사상들에 의해 정당화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러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차이는 각 이데올로기가 포괄하고 실천되는 영역의 범위이다. 인종주의는 유럽인 및 백인을 정점으로 한 전세계적 위계질서로 유색인종들은 그 성격에 따라 이 위계질서 속에 위치된다. 이러한 전세계적 위계질서에 기반하여 하나의 국가 또는 사회 내부에서 집단의 구성원 내외부가 구분되고 시민권의 소유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은 하나의 국가 또는 사회 내부에서 인구집단의 우열을 가르고 열등한 집단은 차별받거나 배제된다. 즉 우생학적 사회에서는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 시설에 갇히거나 사회에서 비가시화되며, 심지어 시민권이 박탈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차이는 국가와 사회에게 있어 타자화된 집단의 성격이다. 인종주의적 사회에서 타자화된 집단, 즉 다른 인종은 착취의 대상이다. 맑스주의자들의 인종주의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인종주의가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유색인종 집단에 대한 착취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였다(Roediger, 1991; Ignatiev, 1995; Guglielmo, 2004). 신대륙에서 타인종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타인종의 노동력을 무료로 또는 값싸게 활용하기 위하여 인종주의 담론이 형성되고 보편화됐다. 반면 내

부인종주의/우생학적 사회에서 타자화된 집단은 제거의 대상이다. 사회의 생존 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열등한 집단은 제거되어 전체 인구 집단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타자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의 또 다른 차이점을 낳는다.

즉 세 번째 차이인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의 지향의 차이이다. 인종주의는 과거회귀적이며, 우생학은 미래지향적이다. 유럽인과 백인을 정점으로 한 인종주의는 서구 문명을 꽃피운 우월한 집단인 백인종은 다른 인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찬란한 문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열등한 타인종과의 혈연적 혼합, 즉 결혼에 의한 혼혈 인구의 증가로 “퇴화(degeneration)”의 과정을 밟고 있다. 때문에 인종주의자들은 순수 백인종들이 만들었던 찬란한 문명의 과거를 끊임없이 동경한다. 반면 우생학은 미래지향적인데, 우생학은 인구의 질의 향상을 위한 현재의 노력에 의해서 미래의 사회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근거해 있다. 우생학은 열등한 신체를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욱 우수한 인종의 주조를 목적으로 한다. 인종에 대한 과학적 개입은 더욱 우월한 신체를 약속하며, 더욱 우월한 신체를 가진 미래 세대는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의 마지막 차이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로 다른 접근법이다. 인종주의는 현재 만들어진 인종주의적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인종간의 교류를 금하고, 인종적 순혈을 고집한다. 그리고 노동력 등의 착취를 위하여 인종적 차이를 강조하고, 타인종을 열등한 지위에 고착시킨다. 반면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몸에 개입하여 열성을 제거하고 우성을 개량, 확산시킨다. 타자화된 집단은 격리되고 비가시화되며 단종되고 추방된다. 반면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여 우성인자를 개량, 확산시키고자 한다(하버마스, 2002; 김호연, 2009; 피쇼, 2009; 염운옥, 2009).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아예 이상적인 새로운 종의 탄생을 꿈꾸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내부인종주의는 우생학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 우생학은 한 국가 내에서 종족으로서의 인구를 우열로 분리하여, 한편으로는 열등한 집단을 배제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멸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한 인구를 확장 또는 개량시켜 확보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생학에 대한 연구는 우생학의 역사와 그 폐해를 드러내지만, 반면 내부인종주의라는 개념은 그러한 우생학적 관점이 민족국가의 주요한 형성 논리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드러낸다.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종족/인구/민족의 탄생과 그러한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탄생은 그 궤를 같이 하였고, 국가의 본래적 기능은 자신의 생물학적 몸/인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때문에 민족/종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국가 내부에는 몸을 둘러싼 차별과 배제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V. 한국에서의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 연구

이상과 같이 근대성, 근대 국가의 형성에 있어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존재하고 기능한다. 이러한 (내부)인종주의는 한 사회 내의 착취, 차별, 배제라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사회를 “유지”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사회의 (내부)인종주의 개념을 그대로 한국 사회에 가져다 쓰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것은 식민지 경험을 갖는 사회의 복잡성 때문인데, 서양의 경우 식민지-제국이라는 이분법적 관계 속에서의 (내부)인종주의 형성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와 달리, 한국의 경우는 식민지-제국의 관계에서 만들어

진 근대적 (내부)인종주의가 다시 일본이라는 제국을 통하여 한국에 들어왔으며, 독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변형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한국의 상황 속에서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 역시 복잡한 형태를 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한국에서의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 연구를 정리하고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 개념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한국의 인종주의

가. 개항기

한국의 식민지 그리고 근대성 형성기의 연구에서 인종주의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에서 인종주의는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라기보다는 일제의 통치성 차원에서 활용되었던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었고, 파편화되어 연구되었다. 그러나 근대 자체가 인종주의적이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근거했을 때, 근대화 과정에서 인종주의는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용화(2004)는 한국인의 근대적 자아가 식민주의, 근대성, 민족주의 등과 복합적 관계 속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였던 서구 문명과 그에 수반한 오리엔탈리즘을 수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통치하에서 ‘일본형오리엔탈리즘’을 받아들이면서 서구와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가 한국인의 근대적 자아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인종주의적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지식인들도 존재했다. 박정심(2008)은 박은식과 신채호의 사상을 분석한 글에서 이들은 일본 및 서양의 근대 문명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그 근대성이 지닌 야만성을 비판함으로써 인종주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민중의 정체성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음을 밝혔다.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인종과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를 묶은 저서 『근대 동아시아에서의 인종과 인종주의(Race and Racism in Modern East Asia)』가 출판되었는데, 이 책의 저자들은 근대 유럽과 북미뿐만 아니라 식민지 특히 동아시아에서도 인종과 인종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Knowler & Demel, 2015). 유럽에서 만들어진 인종에 관한 지식과 사상은 19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에 점차 영향을 미쳐 이곳에서의 인종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머물던 유럽 선교사들은 쓴 인종과 관련된 글들에 청나라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인종 분류와 각 인종별 지식들이 지리학과 의료 지식에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인종에 관한 서구의 지식들이 동아시아에 수입된 경로는 그 자체로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거대한 과학지식을 통해서였고, 그래서 더욱 은밀하고 더욱 영향력이 강할 수 있었다(Barth, 2015).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문명적 가치와 연결된 인종은 중화주의와 관련되어 더욱 쉽게 받아들여졌다. 중국인은 백인의 문명과 비슷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인종으로 여겨졌으며,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유색인종들은 야만인으로 여겨졌다. 즉 인종주의가 포함된 서양의 근대과학지식 수입으로 중국의 지식인들은 백인을 정점으로 한 인종주의적 세계관을 내면화했다. 특히 19세기 말 지역 연구에 있어 일본은 이러한 서구의 인종주의적 지식체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1895년 대만의 식민지화 이후 일본은 대만뿐만 아니라 복단성, 광둥성, 남중국해에 대한 조사하여 지식을 구성하는데 있어 초기 유럽인들의 인종 분류와 비슷하게 조사 지역의 남부 중국인들을 자신보다 열등한 인구 집단으로 간주했다(Kuo, 2015).

박노자(Vladimir Tikhonov, 2015)는 한반도에 인종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민족

주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정치적 상황은 이전에 동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인종 및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야만인이었던 유럽인들은 이 시기 문명화된 백인종으로 재분류되었던 반면, 동아시아인의 인식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른 지역의 비백인들은 경멸의 대상인 미개인, 열등한 인종으로 분류되었다. 일본 역시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인종주의적 인식체계가 수입되었다. 유럽 선교사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비유럽인과 비기독교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보는 인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자신의 위치를 그러한 비유럽인보다 더 우위에 두고 유럽인들과 자신을 비슷하게 보거나 또는 유럽인들과 동일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종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반도에서도 인종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변화되었다. 전근대 유교적 조선 왕조에서 문명화의 척도는 유교문명이었던 중국과의 거리였다. 중국과의 문명적 거리가 가까웠던 조선은 문명국인데 반면 만주나, 일본은 야만인이었으며, 서구인들은 동물과 비슷한 것에 가까웠다. 조선 지식인 이덕무는 거리에서 개와 같이 한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는 더치(Dutch)인을 상상했다. 18세기 실학자인 홍대용 역시 러시아인을 멧청하고 무지하며 흉측한 외모를 갖고 있는 종족으로 생각했다. 반유교화된 국가로서 일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경멸적이었으며, 때문에 부산에 일본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 허가해줬을 때, 조선 여성과의 성행위는 사형으로 처벌했다. 박노자는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근대적 감각에서 인종이나 민족 국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문명적인 조선인과 야만적인 비조선인 사이를 엄격하게 나누는 종족적 구분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종족(ethnicity)에 대한 감각이 매우 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종 또는 종족에 대한 조선의 감각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변화한다. 문명화 또는 진보와 같은 개념과 함께 들어온 인종주의가 조선에서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다. 유길준은 『서유견문(1895)』에서 다양한 인종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블루멘바흐(J.F.Blumenbach)의 백인, 황인,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말레이 인종의 5개 인류 구분법을 소개했다. 그러나 인종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말 조선에서의 열강들의 다툼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 속에서 보다 빠르게 형성되어 갔다. 문명화된 근대국가로서 “백인 국가”들은 이 시기에 들어서면 즉각적인 위협으로 재분류되었다. 제국주의 국가에 의하여 식민지화된 아프리카나 미국 원주민들의 사례는 조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조선인 또는 조선인이 소속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동아시아의 황인종은 백인의 공격을 견딜 수 있으며, 백인 수준으로 문명화되어 있고 만약 진화적 수준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조선, 일본, 중국의 황인종들이 연합하여 러시아 등의 유럽 강대국의 침략을 막자는 주장이었다. 특히 1900년 러시아의 만주점령은 이러한 생각을 더욱 강화시켰다. 때문에 조선의 많은 지식인에게 1904년부터 1905년까지의 러일전쟁은 백인종에 대한 황인종의 승리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러한 ‘동양연대론’, ‘아시아연대론’ 등의 동아시아연대론은 동종동문이라는 서양에 맞선 황인종이라는 지역적, 인종적 정체성을 만들었다(장인성, 2000; 윤해동, 2003; 김정일, 2008; 박노자, 2015).

조선에서의 황인종의 연대라는 논리는 러일 전쟁이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인종 개념이 침략의 도구였음이 명백하게 되었고, 곧 사라지게 되었다(강동국, 2009; 박노자, 2015). 한편 강동국(2009)은 황인종이라는 연대적 인종주의가 깨진 곳을 저항적 민족주의가 급속히 성장해 갔다고 주장한다. 즉 백인을 정점으로 한 인종주의적 위계질서는 서양제국의 실질적 위협과 동시에 과학지식에 포함되어 조선에 받아들여졌다. 조선인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백인과 흑인 사이에 위치지으며, 백인과 동등해질 가능성이 있는 인종으로서 황인종을 개념화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백인종에 맞설 수 있는 황인종의 연대를 꿈꿨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시기 조선인에게 인종주의는

생물학적이면서 문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백인과 맞설 수 있는 황인종으로서의 조선인의 꿈은 좌절되게 되었다.

나. 일제시기

일본은 서구의 인종주의 과학의 방법론을 가져와 조선인의 신체를 측정하고 조사하여 일본인보다 열등한 특성을 찾아내려 했고, 이를 통해서 식민지 통치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다. 이러한 인종주의 과학의 지식생산을 담당했던 기관은 1908년부터는 대한의원 교육부에서 그리고 1926년부터는 경성제국대학의 해부학교실에서 담당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체질인류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조선인의 신체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유럽인과 유색인종 사이의 피부색이나 골격 등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었던 유럽과는 달리 일본에게 있어 조선인은 지리적으로도 신체적 특징으로도 쉽게 구분하기 쉬운 인구 집단이 아니었다(小熊英二, 1995). 심지어 초기 연구들은 조선인의 골격이 더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 일제의 동화정책과 동원정책이 본격화되자 일선동조론이 부각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동문동조론이 힘을 갖게 되었다(박성진, 1996; 박순영, 2006). 그러나 조선인의 인종적 열등함을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정준영(2012)은 경성제대 법의학교실의 혈액형인류학에 대한 연구에서 동화주의에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일본민족의 특권적 위상을 자연적인 것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인종주의 논리가 여전히 존재했으며, 그러한 목적에 의하여 혈액형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본의 정신의학계에서도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인종적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를 했다(Wittner, Brown, et al,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인종주의 과학과 같이 생물학적 특성으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식민지기 일본의 조선 통치와 관련된 것은 생물학적 인종주의보다는 문화적 인종주의에 방점이 찍혔다. 즉 조선인의 문화적 열등성을 부각하면서 통치의 정당성을 획득하려 한 것이다. 최근의 “부랑”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문화와 관련된 식민지 시기 인종주의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들 연구들은 식민지 초기 조선인의 문명적 후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일제가 “부랑”문제를 부각시켰다고 주장한다(소현숙, 2010; 조경희, 2011; 유선영, 2015).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서구의 인종주의가 생물학적 차이를 문명적인 것으로 확대하여 우열을 구분했던 것과 달리 일본의 우열을 가르려는 노력은 문명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서구의 인종주의와 일본의 인종주의는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서구의 인종주의와 같은 목적을 공유했다. 그러나 부랑에 대한 일제의 통치전략은 1920년대를 지나면서 내부인종주의/우생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이후에 논의하도록 하겠다.

한편 조선인의 인종에 대한 생각은 정치적인 상황과 연동되어 변화해 갔다. 조선인들은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인종적/민족적 범주를 확장시키거나 축소시켰다. 백인의 위협에 맞서 조선인들은 황인종 동맹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정치를 시도했으나, 한일병합 이후 그것이 무산되자 다른 이데올로기 정치를 시작했다. 한때는 고구려가 자신의 정체성에 중요해졌으며, 여진족과의 혈통적 관계가 부각되었고, 후에는 일본의 인종주의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동화를 꿈꾸기도 했다.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1930년대 말부터 시작되는 일본인과의 혼인 문제는 혈통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정체성 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 정치 문제였다.

다. 광복 이후

광복 이후 남한에서의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는 나디아 김(Nadia Y. Kim, 2015)의 것이 주목할 만한 하다. 식민지 시기 일본을 정점으로 둔 조선에서의 인종 위계 질서는 해방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위계질서로 대체된다. 한국인들은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지닌 미국인 점령군을 통해서 백인 중심의 위계질서를 내면화하였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위계질서 속에 자신을 백인과 흑인 사이의 어느 곳에 위치시켰다. 이때 흑인 미국 병사는 강한 미국의 일부이자 동시에 인종주의 위계질서의 밑에 있는 이중적 존재로서 한국인들에게 혼란스럽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위계질서 속에서도 한국의 순혈주의는 계속 지속되었으며, 미군과의 “혼혈아”들의 차별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백인과의 혼혈보다 흑인과의 혼혈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과 배제가 더욱 심각했다. 즉 해방 이후 미군의 남한 통치 과정 중에 한국인은 미국 백인 중심의 인종주의적 위계질서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 역시 내면화했다. 그러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시선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고, 개항기부터 조선인에게 흑인종은 야만종이라는 인종주의가 일상에서 점점 명백히 내면화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종주의 내부에서는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해야만 하고, 이러한 혈통의 순수성을 혼탁하게 하는 혼혈은 비난받는다. 설동훈(2007)은 한국 사회의 혼혈인 집단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순혈민족주의’, ‘인종주의’ 및 ‘위계적 민족성’ 개념으로 설명했다. 특히 인종적으로 한국인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흑인과 중국인 또는 동남아인들과의 혼혈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로 여겨졌고, 혼혈인들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비난받았다. 또한 외모가 한국인과 너무 다른 혼혈인 역시 차별을 받는다.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인 등과의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결과로 혼혈아동의 수가 증가하는데, 이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아직 연구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발생한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사건이 촉발한 무슬림 난민 문제가 인종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다가, 무슬림 난민이 대거 입국하자 이들에 대한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슬람포비아는 이슬람을 믿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테러나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구사회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인종주의적 사고를 의미한다. 이렇듯 인종주의 연구는 그 시기가 개항기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과, 해외로부터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개항기의 백인을 정점으로 한 인종주의, 일제강점기하에서의 일본인을 정점으로 한 인종주의, 그리고 광복 이후 미국 백인을 정점으로 한 인종주의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인종주의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전세계적 인종주의 위계질서 속에서 자신을 백인/일본인 바로 밑에 위치시키거나 곧 그들과 동등해질 가능성이 있는 인종으로 자신을 상상하였다. 동시에 흑인을 비롯한 다른 유색인종은 이러한 위계질서에서 자신보다 하위에 있는 열등한 인종이라는 시각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형성된 인종주의적 시각은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이민자들이 증가하자 노골화되었고, 최근에는 문화를 중심으로 이민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신인종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2. 내부인종주의/우생학

한국에서 인종주의 연구가 파편적이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다르게 내부인종주의라는 개념은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역시 아직 시작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생학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생학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최근의 우생학에 관한 연구는 식민지 시기와 광복 이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간주되어 가고 있다. 즉 광복이라는 정치체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기에 형성되었던 조선인의 우생학적 태도는 광복 이후에도 지속하고 있음이 최근의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우생학적 연구에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는 부랑인과 전염병 환자에 대한 연구이다. 부랑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일제가 통치의 일환으로서 인종주의적 시각에서 조선의 부랑의 문제를 부각시켰음을 실증했다(소현숙, 2010; 조경희, 2011; 유선영, 2015). 노동하지 않으며, 빈둥대고, 도덕적이지 않는 “부랑”은 조선인의 주요한 특징을 부각되었다. 문화적인 인종주의적 태도는 1920년대부터 우생학적 태도로 점차 변화한다. 1920년 제1차 산미증식계획 수립 이후, 쌀 수탈이 진행되면서 많은 수의 조선인 농민들이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게 되어 1927년 경에는 도시빈민문제가 심각해지고, 부랑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예지숙, 2015). 반면 총독부는 조선인에게 부재한 근로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랑을 사회악으로 낙인찍었다. 즉 총독부는 노동하지 않는 것은 야만이자 열등한 민족이라는 증거로 인식했다.

한편 1920년대 초반부터 언론에 소개되기 시작한 우생학은 점차 지식인을 중심으로 조선사회에 퍼져있었다(신영전, 2006). 그러던 것이 1930년을 기점으로 사회적으로 확산, 강화되었다. 이방현(2013)의 연구에 의하면 정신병을 둘러싸고 1930년대 ‘정신위생’이라는 용어와 ‘우생학 원인론’이 등장했다. 정신위생과 우생학적 견해로 정신병을 바라보았을 때 질병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질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발전했다. 총독부는 한편으로는 천황에 충성하는 우수한 인구를 재생산하고 양육시키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인구집단은 박멸하고자 했다. 그리고 조선의 민족 엘리트들은 이러한 생각이 조선 민족을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면화했다. 1933년 9월 14일 윤치호 등의 식민지 지식인들이 설립한 ‘조선우생협회’는 우생학적 사상을 활발히 퍼트리며 우생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신영전, 2006). 다음은 1935년 3월 8일에 동아일보에 실린 ‘살인범과 악질자에겐 자녀생산을 금지’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이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여 그 국민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로 악종유전을 절종시킨 일은 벌써 미국 같은 곳에서는 20년 전부터 30여 주에서 나병자에게 거세를 실행해왔었고 독일 나치스 정부에서는 제2차 7월 26일에 열성인 단종법을 시행하여 오는 중이지만 동양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법률로 쟁하는 자는 이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살인강도의 범인으로 그 악성질을 유전할 듯 한 사람, 정신광증, 유전적척수병, 조발성 백치증 등 악질을 유전할 듯한 사람, 또는 유전성 불구, 결핵, 나병 등 중증자로 불정성이 밖에 못 날 사람들에게는 명령으로써 보성당종이 수술을 하고 만일 잘못하여 애를 뱌 경우에는 법의 심판을 거쳐 낙태를 시키자는 것.”

다음은 1937년 매일신보에 실린 ““범죄병”의 존재를 바견’이라는 기사이다.

“범죄인에게는 어떠한 특수한 범죄병(犯罪病)이 잇는 것이 아닐가 하는 것을 미국 「치카코」시의 보건부원 「S.W.뿌라운스타인」박사가 형무의(刑務醫) 「M.H.레뷔」박사의 협력을 얻어 과거 9개년간에 걸쳐야 열심히 연구한 결과 과연 범죄인에게는 일종의 병이 잇다는 것을 발견하여 전미의 시청을 모르고 잇습니다. 동박사는 전과2범으로부터 25범에 이르는 범죄자의 지수(指髓)로부터 수액을 빼내어 이 가운데 포함된 세포의 수를 비교실험한 결과 범죄자의 수액은 보통사람의 것보다

몹시 혼탁(混濁)하고 세포의 수효도 대단히 만흔 것이 판명되어 범죄자의 뇌수는 일종 이상상태에 있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동박사는 말하기를 좌우간 범죄자는 일종의 병에 걸려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어떠한 병인지 또는 어떠한 치료를 해야 할지는 금후의 연구과제이다. 이것이 판명되면 석방할 범인과 석방치 안어야 할 범죄인의 구별이 생겨 사회의 안전은 현저히 보호될 것이다.”

즉 범죄는 사회적인 요인, 즉 식민화, 도시화, 자본주의화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도시에 넘쳐나는 범죄는 개인의 “열등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생각은 과학적 지식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 한편 일본에서 1940년에 제정된 “국민우생법”은 조선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조선에서도 동일한 법의 제정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1945년도의 일본의 패망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1938년에 만들어진 후생성 안에는 예방국 우생과가 만들어졌으며, 이곳에서는 민족우생과 관련된 업무를 보았다. 민족우생과 관련된 업무에는 만성(전염)병, 화류병(성병), 정신병, 중독, 나병이 포함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식민지 조선에는 “인종개량론과 인구조절에 따른 빈민 거세론”이 등장하게 된다(동아일보, 1938.6.29. 우생학상으로 본 단종법, 단종법이란 어떤 것 (중)). 부랑아, 불량소년들은 “정신병적 특성” 또는 “범죄자적 특성”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그 정반대에는 우생결혼의 장려가 존재한다. 우생결혼을 하지 못한 열등 결혼의 결과로서 “부랑의 특성”을 물려받은 부랑아, 불량소년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며, 그러한 인자를 더는 재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식민지인들의 시선에 녹아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부랑인 등 빈민 거세론은 현실화되지 못한다. 대신에 이들에 대한 추방, 수감, 격리가 점차 확산된다. 이 시기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부랑아, 불량아에 대한 감호원 등 수용시설에의 격리는 이러한 우생학적 사상에 기반해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전염병 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을 요구하는 여론이 조선사회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1927년부터 한센병 근절을 위하여 환자 거세를 주장하는 글이 동아일보에 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여수 애양원과, 소록도갱생원에서 한센병 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이 실시되었다. 한센병 환자는 유전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단종수술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우생학적 사회분위기 때문에 1930년대 중반이 되면 한센병 환자에 대한 집중단속과 강제격리가 본격화되기도 했다(김재형, 오하나, 2016).

광복 이후에도 부랑과 한센병 환자를 둘러싼 우생학적 차별은 지속되었다. 이행선(2013)은 식민 지배와 식민지민의 상호조응 매커니즘을 우생학을 통해서 구명하려고 했다. 즉 일제와 조선민중이 이러한 부랑과 한센병 환자에 대한 우생학적 시선을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상호조응의 매커니즘은 광복 이후에도 새로운 주체들인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지속, 확장된 것이다(김재형, 2019). 광복 이후에도 지속된 이 매커니즘의 지속이 가능한 것은 그러한 억압이 지배자의 강제적인 통치에 의하여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억압이 식민지인들에게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부랑”에 대한 식민지인들이자 동시에 독립된 국가의 국민들의 적개심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VI. 결론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은 아직 부족하다.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있어야만 이러한 차별과 배제라는 현상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근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를 설명하는 개념 중 한국 학계에 인종주의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다인종 사회가 아니며,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인종주의 문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미약하다는 생각이 최근까지 지속됐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인종주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종주의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이질적인 요소가 침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번역학적 반응이라고 인식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성은 이미 인종주의가 내재되어 있으며,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인종주의의 자장 안에서 발전해 왔다. 인종주의는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다.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며, 인종차별이라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동시에 인종주의는 인구를 통치하는 기술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인종주의는 인구의 생물학적 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인간을 생물학적 기준으로 우열로 구분하는 인종주의는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기반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종별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이 각 인구집단의 정신, 태도, 행동, 그리고 문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물학적 특징으로 인종을 구분하는 데에는 과학과 과학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과학의 역할 덕분에 인종은 객관적인 실체가 되었다. 그리고 객관적인 실체인 인종 분류와 거기서 비롯되는 인종주의는 제국주의 국가와 유럽이민자들의 피식민지인들에 대한 수탈, 착취,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했다. 그리고 백인종을 정점으로 한 전세계적인 인종의 위계질서가 만들어졌고, 이 위계질서 속에서 각 인종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갔다.

한편 푸코는 인종주의 개념을 변용시켜 내부인종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인종주의가 인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국가와 사회의 안과 밖을 구분하여 그 밖을 착취하는 메카니즘이라면, 내부인종주의는 한 국가와 사회의 내부를 열성과 우성으로 구분하여 열성을 배제하고 우성을 확산시킴으로써 생물학적 종족으로서 인구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내부인종주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인구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한편으로는 열등한 인구를 선별하여 차별 배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한 인구를 확장시키거나 이상적인 인구로 개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내부인종주의는 18세기의 인종전쟁이라는 담론, 그리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라는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만들어진 메카니즘이다. 특히 제국주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인종주의와 자기 민족의 퇴화에 대한 두려움이 결합되어 인종의 정화와 인종의 개량이 없다면 자신의 종족은 생존할 수 없다는 공포는 이러한 내부인종주의를 더욱 강화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인종주의가 과학의 학제로 만들어진 것이 우생학이다. 19세기 영국의 골턴이 만든 우생학은 퇴화에 대한 공포와 더 나은 인종을 개량할 수 있다는 과학적 낙관주의의 산물이다. 더 나은 생물학적 특징은 더 나은 문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이 당시 사회다윈주의적 이념을 만나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우생학의 극단적인 모습은 나치의 열등한 신체에 대한 안락사와 유대인 등의 열등한 종의 학살로 발전했지만, 우생학은 파시스트 국가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었다. 우생학적 사고방식은 인구의 질 개선이라는 근대복지국가의 사상과 제도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다.

한편 한국에서의 (내부)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는 파편적이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는 개화기를 거치면서 조선이 백인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적인 인종의 위계질서에 포섭되어 갔고, 이 과정에서 조선은 자신을 백인과 다른 유색인종 사이에 위치 지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에게 인식된 인종주의는 생물학적인 형태의 것이라기보다는 문명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조선을 병합한 일본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양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피식민지인들의 열등한 신체를 과학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만들었던 백인과 유색인종과의 차이와 비교했을 때 일본인과 조선인은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만 나타났으며, 동시에 특정 영역에서는 서양 인종주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우월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본은 한편으로는 혈액형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비가시적인 영역에서 일본인의 생물학적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시도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물학적 차이보다 문명적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최근 식민지 시기 부랑 연구들은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열등한 문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게으름을 특징으로 하는 부랑이라는 이미지를 조선인에게 부각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한센병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인종주의와 내부인종주의가 결합된 방식으로 조선에서 형성되었다. 서양의 인종주의 질서에서 한센병은 유색인종의 열등한 신체와 문명을 증명하는 중요한 질병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한센병 유병율이 전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일본에게 한센병은 인종주의적 열등감의 근원이었다. 때문에 일본은 일본인 한센병 환자를 절멸시키기 위하여 격리 및 단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반면 조선의 한센병 역시 조선인의 열등함을 드러내는 질병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부랑과 한센병은 내부인종주의화된다. 즉 민족주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선의 열등한 신체를 개량하기 위하여 열등한 조선인의 신체인 부랑과 한센병 환자를 사회에서 제거하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랑과 한센병에 관해서는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엘리트 그리고 민중의 인식과 반응이 동일해진 것이다. 특히 이렇게 형성된 부랑과 한센병에 대한 인식은 광복 이후에도 내부인종주의의 형식으로 지속되었고, 확산된다. 한편 내부인종주의의 과학적 형태인 우생학은 배제의 인종주의뿐만 아니라 우수한 조선/한국인의 신체를 재생산하고 육성하고 개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민족의 우수한 몸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는 재생산의 장소인 여성의 몸 특히 재생산 기관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생물학적인 여성의 몸은 우수한 인구의 생산과 개량이라는 내부인종주의의 목표에 따라 국가에 의해서 세밀하게 관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인종주의, 내부인종주의라는 개념은 한반도에서의 근대적인 것의 형성과 근대국민국가의 형성 과정 중에 사회 내의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데올로기와 실천 체계, 기술들이 이미 배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구조는 생물학적인 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질병과 건강의 담론들, 그리고 더 우수한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담론들, 사회의 위협으로 인식되는 비정상적인 것들은, 그리고 이러한 담론들이 배태되어 재생산되고 실천되는 공간으로서의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를 내부인종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야만 개별적으로 인식되는 다양한 사례들, 예를 들어 형제복지원, 성매매여성, 위안부, 장애인, 한센인 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사회학적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동국, 2009, “근대한국의 국민/인종/민족 개념”,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5(1), pp. 5-35.
-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배영미 역, 2015, 『인종차별주의』, 푸른역사.
- 김경일, 2008, “문명론의 인종주의, 아시아 연대론: 유길준과 윤치호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8, pp. 129-167.
- 김광연, 2014, “자유주의 우생학과 생명정치-유전자 결정론과 생명계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8(2), pp. 109-131.
- 김응중, 2004, “오리엔탈리즘과 인종주의: 토크빌과 고비노의 논쟁”, 담론 201 6(2), pp. 197-220.
- 김재형, 2019, ““부랑나환자”문제를 둘러싼 조선총독부와 조선사회의 경쟁과 협력”, 민주주의와 인권 19(1), pp. 123-164.
- 김재형, 오하나, 2016, “한센인 수용시설에서의 강제적 단종, 낙태에 대한 사법적 해결과 역사적 연원”, 민주주의와 인권 16(4), pp. 153-200.
- 김중현, 2008, “고비노 작품 속의 아시아 여인-『아시아 이야기』를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43, pp. 35-53.
- 김호연, 2009,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영국,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아침이슬.
- 문중현, 2014, “아르튀르 고비노의 인종론: 『인종불평등론』에서 나타난 문명론과 반평등주의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27, pp. 206-237.
- 미셸 푸코, 박정자 역, 1997,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976,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 동문선
- 박노자, 2002, “한국적 근대 만들기 1: 우리 사회에 인종주의는 어떻게 정착되었는가”, 인물과 사상, pp. 158-172.
- 박성진, 1996, “일제하 인종주의의 특성과 적용형태”, 한국근대현대사연구 5, pp. 89-113.
- 박순영, 2006, “일제 식민주의와 조선인의 몸에 대한 인류학적 시선: 조선인 신체에 대한 일제 체질인류학자들의 작업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2(2), pp. 57-92.
- 박정심, 2008, “한국 근대지식인의 “근대성” 인식2”, 동양철학연구 56, pp. 129-159.
- 설동훈, 2007, “혼혈인의 사회학: 한국인의 위계적 민족성”, 인문연구 52, pp. 125-160.
- 소현숙, 2010, “경계에 선 고아들: 고아 문제를 통해 본 일제 시기 사회사업과 공공성”, pp. 357-395. 윤해동, 황병주 편,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함께.
- 신영전, 2006, “식민지 조선에서 우생운동의 전개와 성격: 1930년대 우생을 중심으로”, 의사학 15(2), pp. 133-155.
- 신응철, 2005, “인종주의와 문화철학: 인종주의와 문화-고비노 읽기, 칸트와 니체 사이에서”, 니체연구 8, pp. 121-147.
- 앙드레 피쇼, 이정희 역, 2009, 『우생학: 유전학의 숨겨진 역사』, 아침이슬.
- 앤서니 스미스, 이재석 역, 2018, 『민족의 인종적 기원』, 그린비.
- 염운옥, 2009,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유전자 정치와 영국의 우생학』, 책세상.

- 예지숙, 2015, “일제시기 조선에서 부랑자의 출현과 행정당국의 대책”, *사회와 역사*, 107, pp. 73-96.
- 위르겐 하버마스, 장은주 역, 2002,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자유주의적 우생학 비판』, 나남출판.
- 유선영, 2015, “식민지의 스티그마 정치”, *사회와 역사*, 89, pp. 41-84.
- 윤해동, 2003, “연대와 배제: 동아시아 근대 민족주의와 지식인”, *역사문제연구* 10, pp. 179-201.
- 이방현, 2013,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신병자에 대한 근대적 접근”, *의사학* 22(2), pp. 529-578.
- 이행선, 2013, “일제말·해방공간 우생학과 소년수(少年囚)를 통해 본 ‘착한 / 불량국가’: 거제, 단종법, 격리, 정신병”, *동아시아문화연구* 53, pp. 329-367.
- 장인성, 2000, “‘인종’과 ‘민족’의 사이: 동아시아연대론의 지역적 정체성과 ‘인종’”, *국제정치논총* 40(4), pp. 111-138.
- 전복희, 1995, “19세기말 진보적 지식인의 인종주의적 특성”, *한국정치학회보*, 29(1), pp. 125-145.
- 정근식, 1997a “한국에서의 근대적 나구료의 형성”, *보건과 사회과학* 1, pp. 1-30.
- 정근식, 1997b “식민지적 근대와 신체의 정치”, *사회와 역사* 51, pp. 211-266.
- 정용화, 2004, “한국인의 근대적 자아 형성과 오리엔탈리즘”, *정치사상연구* 10(1), pp. 33-55.
- 정준영, 2012, “피의 인종주의와 식민지의학: 경성제대 법의학교실의 혈액형인류학”, *의사학* 21(3), pp. 513-550.
- 제임스 위트먼, 노시내 역, 2018, 『히틀러의 모델, 미국: 미국의 인종법은 어떻게 나치에 영향을 미쳤는가』, 마티.
- 조경희, 2011, “‘온정’과 ‘교화’의 식민주의: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회구제사업과 그 임계”, *역사문제연구* 25, pp. 235-271.
- 조너선 마르크스, 고현석 역, 2017, 『인종주의에 물든 과학』. 이음.
- 최규진, 2018, “낙태에 대한 개방적 접근의 필요성: 한국 낙태 정책에 대한 역사적, 보건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생명, 윤리와 정책* 2(1), pp. 1-18.
- 최원, 2006, “인종주의라는 쟁점: 푸코와 발리바르”, *문학과 사회* 19(3), pp. 255-273.
- 크리스티안 들라캥파뉴, 2013, 하정희 역, 『인종차별의 역사』. 예지.
- 파농, 프란츠, 이석호 역, 2013, 『검은피부 하얀가면』, 인간사랑.
- Arendt, Hannah. 1944. “Race-Thinking before Racism”, *The Review of Politics* 6(1), pp. 36-73.
- Balibar, Etienne·Wallerstein, Immanuel. 1991.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Verso.
- Banaji, Mahzarin R·Greenwald, Anthony G. 2013. *Blindspot: Hidden Biases of Good People*. Delacorte Press.
- Barth, Daniel. 2015. “Interactions: The Fusion of European and East Asian Constructions of Race” in *Race and Racism in Modern East Asia*. Rotem Kowner, Walter Demel ed., Brill.
- Blumer, Herbert. 1958. “Race Prejudice as a Sense of Group Position”, *The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1), pp. 3-7.

- Bobo, Lawrence D. 2015. "Theory and Racialized Modernity: Du bois in Ascendance", *Du Bois Review* 12(2), pp. 225-230.
- Bobo, Lawrence·Kluegel JR·Smith, RA. 1997. "Laissez-faire racism: The crystallization of kinder, gentler, antiblack ideology" in *Racial Attitudes in the 1990s: Continuity and Change*. Steven A. Truch and Jack K. Martin ed., Westport.
- Cornell, Stephen·Hartmann, Douglas. *Ethnicity and Race: Making Identities in a Changing World*. Pine Forge Press.
- Demel, Walter. 2015. "Constructing Racial Theories on East Asians as a Transnational "Western" Enterprise, 1750-1850" in *Race and Racism in Modern East Asia*. Rotem Kowner, Walter Demel ed., Brill.
- Denis, J·Clair, Matthew. 2015. "Sociology of Racis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2, pp. 857-863.
- Diogo Rui. 2017. "Links between the discovery of primates and anatomical comparisons with humans, the chain of being, our place in nature, and racism", *Journal of Morphology*, pp. 1-22.
- Edmond, Rod. 2006. *Leprosy and Empire: A Medical and Cultural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ält, Olavi K. 2015. "The Racial Image of the Japanese in the Western Press Published in Japan, 1861-1881" in *Race and Racism in Modern East Asia*. Rotem Kowner, Walter Demel ed., Brill.
- Francis Galton, 1883,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Macamillan And Co.
- Gillborn, David. 1995. "Racism, Identity and Modernity: pluralism, moral antiracism and plastic ethnicity", *International Studies in Sociology of Education* 5(1), pp. 3-23.
- Goffman, Erving, 1961, *Asylum: Essays on the social situati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r inmates*, Garden City. Anchor Books.
- Guglielmo, Thomas, 2004. *White on Arrival: Italians, Race, Color, and Power in Chicago, 1890-1945*. Oxford University Press.
- Gussow, Zachary. 1989. *Leprosy, Racism and Public Health*. Westview Press.
- Haney-Lopez, Ian. 1996. *White by Law: The Legal Construction of Race*. New York University Press.
- Hesse, Barnor. 2007. "Racialized modernity: An analytics of white mytholog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30(4), pp. 643-663.
- Howe, Stephen. 2002. *Empire: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Ignatiev, Noel. 1995. *How the Irish Became White*. Routledge.
- Jacobson, Mattew. 1998. *Whiteness of a Different Color: European Immigrants and the Alchemy of Race*.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Nadia Y. 2015. "Race-ing towards the Real South Korea: The Cases of Black-Korean Nationals and African Migrants" in *Multiethnic Korea? Multiculturalism, Migration, and Peoplehood Diversity in Contemporary South Korea*. John Lie, ed.,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Publishing.
- Kim, Seonmin. 2018, *Re-Categorizing Americans: Difference, Distinction, and Belonging in the Dillingham Commission (1907-1911)*,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Kinder, Donald R·Sears. 1981. "Prejudice and Politics: Symbolic racism versus racial threats to the good

-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3), pp. 414-431.
- Kolchin, Peter. 2002. “Whiteness Studies: The New History of Race in America”,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9(1), pp. 154-173.
- Kowner, Rotem·Demel Walter, 2015, “Introduction: The synthesis of Foreign and Indigenous Constructions of Race in Modern East Asia and Its Actual Operation” in *Race and Racism in Modern East Asia*. Rotem Kowner, Walter Demel ed., Brill.
- Kowner, Rotem·Skott, Christina, 2015, “East Asians in the Linnaean Taxonomy: Sources and Implications of a Racial Image” in *Race and Racism in Modern East Asia*. Rotem Kowner, Walter Demel ed., Brill.
- Kuo, Huei-Ying. 2015. “Learning from the South: Japan’s Racial Construction of Southern Chinese, 1895-1941” in *Race and Racism in Modern East Asia*. Rotem Kowner, Walter Demel ed., Brill.
- Lévi-Strauss, Claude. 1952. *Race and History*. UNESCO.
- Love, Eric T. L. 2004. *Race Over Empire: Racism and U.S. Imperialism, 1865-1900*.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Meller, Helen. 1989. *Patrick Geddes: Social Evolutionist and City Planner*. Routledge.
- Messy, Douglas·Denton, Nancy. 1993. *American Apartheid: Segreg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dercl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Moran, Michael. 2007. *Colonizing Leprosy: Imperialism and the Politics of Public Health in the United State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Pager, Devah·Shepherd, Hana. 2008. “The Sociology of Discrimination: Racial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Housing, Credit, and Consumer Market”, *Annual Review of Sociology* 34, pp. 181-209.
- Rasmussen, Kim Su. 2011. “Foucault’s Genealogy of racism”, *Theory, Culture & Society* 28(5), pp. 34-51.
- Richards, Graham. 1997. *‘Race’, Racism and Psychology: Towards a Reflexive History*. Routledge.
- Roediger, David. 2005(1991). *The Wage of Whiteness: Race and the Making of American Working Class*. Verso.
- Stewart, James. 1998. “The Emergence of Racial Modernity and the Rise of the White North, 1790-1840”,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18(2), pp. 181-217.
- Stoler, Ann Laura. 1995. *Race and the Education of Desire: Foucault’s History of Sexuality and the Colonial Order of Things*. Duke University Press.
- Strange, Caroly · Ashford, Alison. 2005. *Isolation: Places and Practices of Exclusion*. Routledge.
- Stuurman Siep. 2000. “François Bernier and the Invention of Racial Classification”, *History Workshop Journal* 50, pp. 1-21.
- Tikhonov, Vladimir. 2015. “Discourses of Race and Racism in Modern Korea, 1890s-1945” in *Race and Racism in Modern East Asia*. Rotem Kowner, Walter Demel ed., Brill.
- Turda, Marius. 2010. *Modernism and Eugenics*. Palgrave Macmillan.
- Wittner, David·Brown. 2016.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in the Modern Japanese Empire, Philip*. Routledge.

藤野豊, 1998, 『日本ファシズムと優生思想』, かもがわ出版.

藤野豊, 2001. 『「いのち」の近代史: 「民族浄化」の名のもとに迫害されたハンセン病患者』, かもがわ出版.

米本昌平, 松原洋子, 勝棚次郎, 市野川容孝, 2000, 『震生学と人間社会: 生命科学』, 講談社.

小熊英二, 1995, 『単一民族神話 起源: 「日本人」の自画像の系譜』, 新曜.

• 편 집 위 원 •

위 원 장	이	석	호
위 원	라	선	아
	정	시	영
	박	종	성
	이	영	애
	박	지	호
	정	재	화
간 사	김	태	한
	이	다	림
	이	선	영

KNOU 논문 <第74輯>

2022年 8月 31日 印刷
2022年 8月 31日 發行

編輯人	韓國放送通信大學校 論文集編輯委員會
發行人	高 晟 煥
發行處	韓國放送通信大學校
印刷處	社會文化社(☎2263-0523)
